朝鮮日報 夕刊 十日(金)

단치히市問題로 英佛間軍事會議

波蘭이蹶起치안흐면英國도傍觀主義

結局、獨逸로歸屬?

【倫敦發電】단치히自由市를 獨立시키려는 나치스의 策動에備하기爲하야 英佛間에 極秘裡에協議를 進行하고잇든바 단치히自由市上院議長으로 同地나치스의 領袖 그라이저氏의 주네브에서의 聯盟蔑視的態度等으로보아武力行動勃發이 念慮되게되엇스므로 萬一의境遇에 備하기爲하야 드듸어 英佛兩國 參謀本部의共同會議가 열리게되어다고 傳한다 右會議는 나치스騷擾가 勃發하는境遇에 이影響을 全歐洲에 波及치안토록 防止하기爲하야斷乎 軍事的制壓을 加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나 佛國側이끗까지 波蘭을 支持하야 軍事行動도 不辭한다는 强硬態度임에 反하야 英國態度는 極히 軟弱하야 萬若 波蘭이나치스의 武力行動에 對하야 스스로 蹶起할勇氣가 업슬境遇에는 英國이自進하야 단치히의 現狀維持에 任할義務는 업다는 意見에 기울고잇다。이든外相은 六日夜의 閣議에서 단치히問題의 重大性을 强調하고 獨逸政府가 英國政府의 質問書에 對하야 아직 回答을 與하지안는 事實을 指摘하야 獨逸의 이態度는 全世界가 大英帝國을 蔑視하고잇다는 結論에서 英國政府를 侮蔑하려는데 不外하다고 說하야 閣議에는 不安焦燥의 氣分이 濃厚하엿다고 傳하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右閣議에서는 단치히問題解決은 모다 波蘭政府에 一任하고 聯盟理事會의 決定에 맛길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엿던 모양이다 그런데 英國政府는 參謀本部會議와 並行하야 八日 再次閣議를 開하고 단치히問題를 繼續 審議할터이다。(寫眞은 이든英國外相)

歐洲戰亂의徵候

단市問題와英國輿論

【倫敦發電】獨逸政府가 라인非武裝地帶에 進軍을 斷行한以來 暗雲低迷狀態를 繼續해온 歐洲國際政局은 伊에兩國間의 紛爭이 事實上 一段落을 告하게된後도 容易히 安定되지안코 몬트르會議의 紛糾 나치스政府의 단치히自由市併合工作으로 再次重大政局에 當面하게되엇다 세실卿가튼이는 七日夜 英國聯盟協會晩餐會席上에서 國際政局의 緊迫을 指摘하고『단치히自由市 最近의 情勢는 全혀 戰爭의兆候를 示하고잇다』고言明하엿는데 倫敦各紙도 八日紙上에서 올림픽大會閉幕에압서 戰爭이勃發할것이다 라고 붓을 나란이하야 警世의 辭句를 連하엿다 特히 모닝포스트紙는 大會終了와함께 獨逸政府는 단치히自由市、메멜、墺太利、체코슬로바키아 어느地點에서 震天動地의 活動을 起할것이다 라고 述하엿다 로이털通信社의 報道에 依하면 英國政府도 國際情勢의 推移에 鑑하야 國防充實의 急務란 所以를 痛感하고 赤字財政을 覺悟하고 陸海空三軍의 强化擴充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하는데 伊太利政府는 뿌렌넬고개一帶에 集結待機中이라고 傳하야 歐洲의 國際政局은바로 一觸即發 風雲濃의 現狀이다。

海洋制覇로부터 空中制覇에!

英航空擴張案全貌

【倫敦發電】英國이 光輝잇는海軍第一主義를 一擲하고 마침내 空軍第一主義로 나서려는것은 世界에 널려잇는 英帝國領土와 本國間의 交通路保護라는 根本國策의 貫徹에는 벌서 海軍에만 依存할수업게되어 時勢進步의 所致이어니와 英國政府로하여금 列國에 率先하야 그關心을 海上으로부터 空中開拓에 轉換케한것은 勿論 昨年來의 歐洲政局에 不外하다 即 그一은 伊에紛爭을機로 地中海制覇가 空軍出現으로 困難하엿다는 試驗이 導火線이 되엇다 그래서 英國政府는 向後 五個年을 期하야 陸海空軍大擴張에 進出하고 將히 空軍充實을 爲해서는 人員器材의 方面뿐아니라 國家의勞働、産業、資本部門을 總動員하야 世界第一空軍現出에 必死의 活動을 하고잇다 最近 航空次官쌧·필립스·삿수운氏의 發明으로 明白하게된 英帝國航空路의 大擴張案과如한것은 그 一證左이다 同次官이 下院에서 發表한바에 依하면 英國은 來年末까지에 近東(埃及)印度 阿洲 濠洲及 南北米洲에 對하야 航空路를 設定하고 全世界航空路의 約五萬哩를 獨占하야 米國을 壓倒하고 世界의 空中制覇를 樹立하려는것이다。그때문에 英國은 向後十五年間 年年百五十萬磅의 補助로서 民間航空會社의 飛行機製作及 運輸事業을 援助할터이오 特히 民間航空會社의 合同으로 構成되는「임피리얼、에어웨이」에 對하야 現在의 資本六十五萬磅을 最小額二百萬磅以上에 增加케하야서 堂堂히 英國政府의 大使命達成의 第一線에 서게하려는것이다 그런데 이計畫의 프로그람을 보건대 英本國과 海外各國間의 定期航路의 幹線은

一、英本國、埃及間 一週九回往復
二、英本國、印度間(二日半) 一週五回往復
三、英本國、東阿間(二日半) 一週三回
四、英本國、新嘉坡間(四日半) 一週三回
五、英本國、濠洲間(六日) 一週二回
六、英本國、南阿間(四日半) 一週二回

라는 計畫으로 新嘉坡線은 이미 香港까지 定期擴張되고 英濠線은 新西蘭까지 延長交涉中에잇스며 또 南北米洲에 對해서는 今年中에 定期線을 設하기로되엇다。南米航空路는 大西洋의 上空을 飛翔하는 同時에 米國西岸의 英領土를 連絡할 計畫이며 北米航空은 如左한 三機의 最新式飛行機를 使用하야 試驗하는 計畫이다 第一은 全金式單葉機 칼레도니아號를 使用하야 旅客用의 空間과 重量을 追加燃料탱크로 換算하야서 航續性能을 增大하야 대번에 아조레스及버ー무다스島 上空을거처 北米大陸의『에어·메일·서비스』를 하려는것이오 第二는 메ー요ー複合機로 飛行途中에 空中에서 多量의 郵便物을 搭載한 水上機를 發送하는것이다 發送된 水上機는 그대로 뉴파운들란드島까지 無着水飛行을한다 最後의 使用機는 英航空省에서 二機를 買上하야 試作에 着手中인데 巡航速度二百哩의 性能을 發揮하야 英米間을 겨우 十時間以內로 飛行하려는計畫이다。그런데 英國서는 五月末 全國飛行場에서 一齊히 飛行練習을 擧行하야 官民合同으로『空中의關心』을 宣傳하며 엠미·모리슨夫人은 三新記錄을세워 堂堂히 倫敦 케이프타운往復의 單獨飛行을 完成하엿스며 로체스터에서는 晝夜兼行으로 쇼ー트式單葉機二十八隻의 竣功을 急히 行하고 아암스트롱·위트와스工場에서는 大型의 陸上機十二隻製作에 餘念이업는現狀이다。

中立은幻影!

歐洲戰亂勃發하면 米國은再次渦中에

海洋自由問題가問題

【샤로츠빌(버지니아州)發電】米國銀行家 올리ー氏는 七日午後 버지니아大學 社會問題研究所에서 米國政府의 海洋自由政策은 다음 歐洲戰爭에 際하야 米國을 再次戰禍中에 휩쓸어너흘 危險을 包含하고잇는것을 警告하야 如左히 演說하엿다 米國政府의 傳統的海洋自由의政策은 一旦 歐洲에 戰禍가起하면 又復 危機에 瀕할것은 疑心할 餘地가업다 大戰에 際하야 루시타니아號가 獨逸潛水艦에게 擊沈되자 米國政府는 비로소『그直接的利益』을 擁護하기 爲하야 聯合國側에 加擔하야 參戰하게되엇다 米國이 參戰한것은 所謂『民主主義의 擁護』를 爲해서가아니오 참으로『海洋自由』의 原則을 維持擁護하기爲함이엇다 今後의 歐洲大戰에 際하야 米國政府가 그 傳統的海洋自由의 政策을 堅持하는限 戰爭에 參加될 危險은 늘 米國을 威脅할것이다

同席上에서 經濟의 有力者 룰보드·카우다ー트氏는 中立이란 畢竟한『幻影』에 不過하다고 米國政府의 中立維持政策을 攻擊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問題는 中立維持가 아니오 米國政府가 그 商船의 航海自由權을 어대까지 堅持하느냐하는 그程度問題이다 米國은 他國의 戰爭에 當하야 交戰國과의 交易權을 放棄하여서까지 中立의 名을 維持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豫算上難問으로 國策閣議中止!

閣議中心主義로부터首相藏相事前檢討에

果然!國策洪水亂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庶政一新要望의 機運에乘하야 國策을 決定하려는 意圖下에 去三日부터 國策閣議를 開始하고 이미 賴母木 林兩相으로부터 各省電力國營、航空、海運三大國策及司法部의 陣容整備等의 說明을終了하엿는데 今後 各省으로부터 提出될 國策은 極히 多數에 達하고 他方 陸海兩省의 國防計畫案은 極히 尨大한 內容인것이 漸次 判明되어 이에 對하야 馬場藏相은 稅制改革及 公債政策으로 財源捻出을 圖할方針을 樹立해왓는데 內外情勢로보아 將來의 歲入計畫을 樹立하는것은 困難한것이 豫想되게되엇스므로 이대로 國策閣議를 繼行하더라도『重要國策이란 무엇이냐』하는根本方針에 疑義를生하야 부질업시 國策洪水에 當面할 憂慮가잇서 廣田首相도이點을 憂慮하고 十日의 閣議에는 特別한 重要國策의 審議를 하지안코 各閣僚에게 國策審議에關한 意見을 徵한 結果 馬場藏相을 爲始하야 寺內 永野兩軍部大臣도 從來와가튼 審議方針은 無用이라는것을 認定하고 十日의 閣議에 繼續하야 十三、十四、十五의三日間 開催할려이든 國策閣議를 中止하고 國策審議의 事前策으로 새로如左한 決議를 하엿다

▲決議事項 從來의審議方針은 非常히時間을 要하야 進行上 도로혀支障을生할 念慮가잇스므로 今後 各省에서 提案할政策은 各省에서 大藏大臣과 協議한 後 總理大臣及 大藏大臣에게 提出할것 그리고 그政策에 關하야 他省과關係잇는것은 同時에 그關係省에도 關係事項을 書面으로써 總理大臣及 大藏大臣에게 提出할것 總理大臣 大藏大臣은 此等書面을 詳細히 檢討하고 大體의 豫測을 세운다음에 다시 閣議에서 各大臣으로부터 說明을 求할것 大藏大臣에게 提出할 國策書面은 豫算에 關해서도 詳述할것 各省에서 國策案에 關하야 總理大臣及 大藏大臣이 疑心되는 點이 잇스면 主管大臣을 招請하야 國策閣議에 提出할 與否를 協議決定할것

따라서 十日의 閣議에서는 아모國策도 上程되지안엇다 重要國策審議가 當初의 閣議中心主義로부터 方向轉換되어 首相、藏相의 事前檢討로 옴기게된것은 非常히 注目되고잇다한다(寫眞은 廣田首相과 馬場藏相)

內定된行政官移動

松本慶南內務部長이 全南知事로 榮轉함에 伴한 其後任異動은 二三日內로 發令될터인데 慶南內務部長에는 高平北內務部長이 榮轉하고 其後任에는 關口京城專賣支局長이 轉出、京城專賣支局長에는 信原專賣局事業課長이 轉出 又咸興稅務監督局信原稅務部長이 專賣局課長에 京畿道原田地方課長이 咸興稅務監督局部長에 榮轉하게되엇다 한다

難關이疊疊한 二中全會開會

【南京十日發同盟】西南問題處理如何의 大問題를 안은 二中全會開會式은 今日午前六時 中山陵에서 盛大히 擧行되엿다 蔣介石、林森、馮玉祥、閻錫山의 諸氏以下 各中央委員이 參列하야 形式的 宣言을 行하고 林森國民政府主席이 開會辭를 述하고 一同이 孫文의 墓에 參拜한後 繼續하야 午前八時부터 中央黨部內第一會議廳에서 豫備會議를 開會하고 大會主席團을 推薦하야 會議決定等의 議事進行上의 諸般手續에 關하야 審議를 開始하엿다

英主力艦二隻建造

備砲口徑은十四吋

【倫敦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 華府、倫敦兩條約失効後의 情勢를 考慮하야 三萬五千噸級主力艦二隻의 建造를 決定하엿스나 備砲口徑에 關해서는 一九三六年의 倫敦條約의 主旨를 遵守하야 끗까지 十四吋를 採用하기로 決定한 模樣이다 備砲口徑에 關하야는 米國이 倫敦新條約參加를 拒否하엿기 때문에 米國政府는 免除條項을 採用하야 十六吋를 裝備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英國政府는 極東水面과 歐洲水面과를 區別하야 歐洲水面의 艦艇에 對해서만 十四吋砲를 裝備하야 倫敦條約의 主旨貫徹을 期할方針이라고 解釋되며 右에 關하야 英國政府當局은 如左히 言明하엿다 英國政府는 三萬五千噸級主力艦二隻의 建造를 決定하엿다 그備砲口徑에 關해서는 米國政府가 새로 建造할 主力艦二隻의 備砲口徑을 十六吋로하는 與否에 不拘하고 英國은 끗까지 十四吋砲를 裝備하기로 決定하엿다 但 艦艇의 移動性에 鑑하야 極東及 歐洲兩水面上을 區別하는것은 結局에잇서서 無意味한것으로 英國政府의 眞意가 奈邊에잇는지 豫測키難하다

蘇聯官憲에拿捕된 日本漁船에罰金刑

【札幌電話同盟】九日午後一時北海道廳外事課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過般北千島에서 蘇聯官憲에게 拿捕된 日本漁船 琴平丸、濟善丸 第一海國丸은 去一日페트로파우로브스크에서 公判에 廻附되어 琴平丸은 三百留、濟善丸은 二百留 第一海國丸은 百五十留의 罰金에 處하엿다고한다

八面鋒

◇産業統制、金融統制、甚至於 銀行券統制까지 나오는 時代。

◇市場統制라는 名目下에 在來市場의 存在가 問題에 오른다고。

◇統制와 獨占은 同意語로 活用함은 斷然不可。

◇獨占中에도 緣故를 無視하는 新組織體의 登場은 萬萬不當。

◇十七歲의 少年少女가 漢江에서 情死하고 十六歲의 少女가 鐵道에 自殺。

◇單純히 감작한 노름이라고 할가 子女가진 父母의 愼重히 생각할 課題。

◇初伏도 압흐로 一週日、비는 올듯말듯 農夫의 가슴엔 愁雲이 오락가락。

軍事輸送의完壁

蘇聯極東鐵道網

重要線路는이미完成

【哈爾濱發電】蘇聯이 極東鐵道의 軍備擴充에 努力하는同時에 軍事上、産業上 가장重要한 各鐵道網의 整備를 急行中이라함은 屢報와갓거니와 當地某機關에들어온最近의 極東鐵道의 整備狀況은 如左하다 軍事上産業上重大視되고잇는

一、우스리線複線工事 哈府智多間完成
二、哈府ー콤소모리스크線은昨年起工、新設되는 밤線에連絡
三、『밤』線은 바이칼湖附近四十粁完成
四、目下建設中인 바이칼湖東岸鐵道工廠은 今年末 乃至來年에 初竣功할豫定인데 極東全鐵道의 修理를 行할것으로 그規模는 極東第一이라고稱한다

米大統領選擧戰

民主?共和?

共和黨健全財政政策과『節約의神』랜든의爲人

④ 韓普容

一九三二年總選擧때에 루ー즈벨트氏가어든 投票數는 百八十二萬一千八百五十七票에 達하엿는데 다시 選擧區票數로보면 후ー버氏의 五十九票에對하야 實로 四百七十二票라는壓倒的勝利를 告하엿든것이다。上院議席은 三五對六〇으로民主黨이 優勢하엿고 下院議席을 一一四對三〇九로 亦是 民主黨이 勝利하야 共和黨은 글자그대로 餘地업시 慘敗하엿든것이다。

이와가티壓倒的勝利를 어든 民主黨의 勢力은 이에끄치지안헛다。就任以來 NRA를爲始하야 일즉이 資本制社會에서는 그類例를 보지못한 果敢한 政策으로 深刻한 恐慌克服에 邁進한 루ー즈벨트大統領의 人氣는 차츰더 乘勢하야 一九三四年 十一月에 擧行된 所謂 中間選擧에잇서서 民主黨은 다시 그勢力이 擴張增强되엿다。即 上院에잇서서는 새로 九名의 新議員을 獲得하야 六十九名으로되엿고 下院에잇서서는 또다시 十二名의 新議員을어더 二百十一名으로되엿다。反面에잇서 共和黨은 上院議員이二十四名으로 줄고 下院議員도 一名이 減少되엿다。以上과가튼 推勢에 直面한 共和黨內에는 여러가지 物議가 紛紛하게되엿다。

南北戰爭以來 絶對的勢力을 保持하면서 아메리카政權을 獨占한 感이잇던 常勝黨 共和黨이 이가티 不振하게되자 一般社會에는 共和黨의 沒落說이 돌게되고 黨內에는 黨의 改造說이 擡頭하게되엿다。그리하야 共和黨에서 第一로 問題된것은 次期總選擧(一九三六)에 어떠한 政綱을 看板으로하고 어떠한 候補者를 出馬시킬것인가 하는問題이엿다。從來와가튼 平凡한 主張、平凡한 候補로는 勢力挽回는 姑捨하고 一步잘못하면 黨勢가 더욱 萎縮되야 고만말로 黨의 存廢問題에까지 逢着할는지 모르는까닭이엿다。

이러한 情勢下에 NRA의 違憲判決을 中心으로 一九三五年에 드러와서는 旭日昇天하던 루ー즈벨트의 人氣가 떠러지기 始作하야 共和黨의 뉴 … 次期大統領候補가되려는 野心을 가진 有力한 政客들이 루ー즈벨트의 뉴딜政策을 異口同聲으로 攻擊하게되엿다。이現象은 共和黨에잇서서는 千載一遇의 絶好的機會이엿다。即 뉴딜政策의 反對宣言은 말할것도 업고 與黨인 民主黨間에도 할마ー지、알·스미드等 次 …

랜든『엉클샘!』 그대를 이荒浪의 苦悶에서 救하는者는 오즉 나밧게 업슬것이다 보라! 米國四十八州에서 나만이 자진 이救命袋를!

… 以外에도 國民大衆에게 反뉴딜勢力이 相當히 潛在한것을 看破하고 次期大統領選擧에는 뉴딜反對를 唯一無二의 武器를삼고 健全財政政策을 根幹으로한 收支均衡을 高調하기로하엿다。勿論 野黨으로서의 共和黨이 政權을 獲得하려면 現政府의 政策 뉴딜을 攻擊하여야할것은 必然的歸結이어니와 뉴딜攻擊의 不可避의 立場에잇는 共和黨에 잇서서 一般社會에도 그와同一한 反政府的傾向이 濃厚하여젓다는것은 至極히 有利한 推勢라고 안할수업다。

次期總戰에잇서서 黨의 作戰內容이 確立된 共和黨은 인제 黨의 公認立候補로 어떠한 사람을 내여세울까하는 第二問題에 逢着하게되엿섯다。一般的으로말하면 人氣로보나 經驗으로보나 또는 政治家的 手腕으로보아서 아이다오州選出 上院議員 윌리암·보라氏以上으로 갈곳가업스며 다음 미쉬간州選出 上院議員 아ー더·벤덴버ー그氏、쉬카고 데일리 뉴스社長 프랭크·녹스大佐等이 有力한 共和黨 候補者이엿다。그러나 以上三名以外에 今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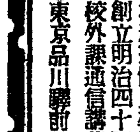
公認候補로된 캔사스州知事 알프레드·랜든氏는 特別한 武器를가진 有力한 候補이엿다。그는 政界에 出馬한지는 日淺하나 그에게는 이미 캔사스州콜리지(?)라는 豫稱이 부러잇고 次期政戰에 가장有利한 豫算均衡의 手腕을보여준 壯年政治家이다。그가 知事로 當選되기는 一九三二年 總選擧때가 처음이엿다。一九三四年 中間選擧때로말하면 全國的으로 共和黨이 慘敗하엿는데 오직 랜든知事만은 悠悠히 再選되엿다는 事實은 全國民으로하여금 랜든知事의 存在를 알니게하엿스며 그의 人氣를 노피게한것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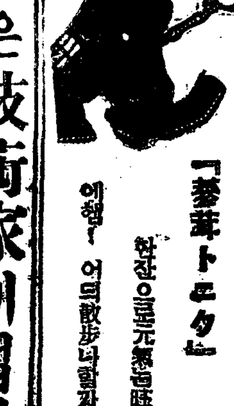
랜든知事가 이가티 再選된것은 元來 캔사스州에는 共和黨地盤이 堅固하다는 事實에 基因함이 만치마는 그가 昨今과가튼 인프레 氾濫時代에잇서 캔사스州의豫算均衡에 成功하엿다는 即 健全財政家로의 手腕을 보여줫다는點으로 크게關係되엿다。그리하야 랜든知事는 以來『節約의神』으로 일홈을 날리게되엿다。그리고 이事實이 現在 共和黨이 直面하여잇는 事情에 얼마나 귀여운 存在인것은 讀者가 推測할수잇슬것이다。

랜든氏의 節約的事績은 知事가 된以後에 비로소 생긴思想이 아니다。그는 벌서 學生時代부터 經費節約이라는데는 놀랄리 留意하여오고 또 實行하여왓다。그가 캔사스大學在學時代에 學生委員으로 잇섯는데 食堂定食의『메뉴』에 全部 料金을 내리우는데 成功하엿고 大學所屬『오ー케스트라』가 둘이 잇던것을 經費節約을爲하야 하나로 만드럿다 한다。이러한 事實에 비추어본다면 랜든氏는 生來的으로 節約家이엿다는것을 알수잇슬가한다。

그런데 現下 共和黨의立場이 健全財政家를 要求하게되엿고 랜든氏는 이러한 情勢下에 잇서서 가장 適當한 사람이라는것이 這番 클리ー브랜드黨大會에서 그가 公認候補로 當選된 主要原因이겟지마는 그外의 理由는 過般 各州豫選으로보와 民主黨이 依然 優勢할뿐아니라 昨年에는 떠러지는듯하든 루大統領의 人氣가 景氣回復에 伴하야 上昇하고잇다는것을본 有力한 共和黨候補者들이 勝算업는 今秋總選擧에나가 傷處를 받는것보다 一九四〇年總選擧까지 기다리는것이 有利하다고생각하고 自退한者가 만히잇다는 事實을 이저서는안되다。(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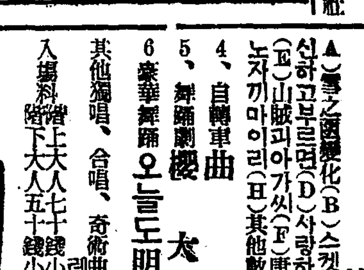
朝鮮料理 天壽閣
風景과藥水의 安寂寺後麓
京城下往十里町
電本局(四)九一一番


◎失職은技術家에엽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함이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으로누구든지 一技를배워서獨立生活의安定을獲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東京寫眞學校


『參茸トニク』
한잔으로元氣百倍
예 어데散步나할가

무엇때문에蛔虫이무서운가
蛔虫이 人體에寄生되면 重要한營養을 吸收하야 成長되는故로腹痛을이르키든지 熱이나든지하야小兒는발에올고、봄이 뾰족케되고、그外에여러가지병을 이르키며乃終에는 生命을 危險케하는일도 만흠으로 반드시『산독니녈과자』(珊篤尼涅菓子)를먹여서蛔虫을驅除케하십시오 蛔虫의卵은 每日잡수시는 野菜漬物、其他食物에부터서 人體의內臟에 드러가면害를끼치며、特히小兒는 蛔虫에걸니기쉬운關係로日本서는 日曜日마다『산독니녈과자』(珊篤尼涅菓子)를먹입니다。『산독니녈과자』는數十年來의經驗과信用을가진有名한虫下藥菓子이오니安心하고愛用하시라
大阪天王寺ノ虫下シ
珊篤尼涅菓子 산독니녈과자 サントニネカシ
(岩崎大海堂セメン菓子)
類似品잇으니 珊票에注意하시압

京都名物 五色會公演
七月六日밤부터向四日間晝夜
絶讚無比의京都美人五十餘名의藝成인大레뷰ー!團五色會의公演!和洋管絃樂伴奏裡에展開될大레뷰ー! 舞踊、歌劇奇術曲藝等 精彩色된大衆藝術은明華麗한東劇舞臺에 一大煌烈한境을이루을것이니 따분한여름밤을삽으로서 淸涼劑를삼으시라
上演藝題
1 사랑의꼿다발
2 曲藝 땐스
3 봐라에레아가씨祭 外九景
4 (A)長之國變化(B)스켓취(C)당신하고부르면(D)사랑하는『お七』(E)山賊과아가씨(F)唐人의娘(G)노자끼마이리(H)其他數景
4、自轉車曲
5、舞踊劇 櫻
6、豪華舞踊 오늘도明朗히
其他獨唱、合唱、奇術曲藝 太名藝 外七景
入場料 階上大人七十錢小人五十錢 階下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西大門町 電光3二三番 東洋劇場


山下テント
電話三四四番
釜山大倉町
カタログ進呈

胃腸病仙藥 神秘丹
大邱達城町合 本舖 景春堂

株式名義書換停止公告
當會社定款第十條ニ依リ昭和十一年七月十日ヨリ第十四回定時株主總會終了ニ至ル迄株式名義書換ヲ停止ス
昭和十一年七月十日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文化ヤン
リリヤン
푼사실
불란서실
끈색실
재봉실
누비어불
처네·편대기
(商報進呈)
百般手藝材料製造卸小賣 其他
黃海道拔華邑菊花里
文化堂營業部
振替京城二五二四三番

金銀
金銀賣買會社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②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住宅地特價提供

京城府鍾路五丁目	貳六番地	田	一百拾八坪
同所	五四番地	田	四拾六坪
同所	六四番地	田	貳拾四坪
同所	六六番地	田	五拾七坪
同所	八三番地	田	八百參拾五坪
同所	八五番地	田	一百五十七坪
同所	八八番地	田	八〇坪
同所	六五番地	垈	九五坪

詳細事項은 左記住所로 問議하시옵
大光産業株式會社
京城鍾路四丁目四九 電話光二三二二·二五一九

國外脫出했다 再入國한 李載裕를 猛搜查

連絡嫌疑者를咸南地方에서檢擧取調

京畿道警察部서 緊張活動

경긔도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작년(釜嫌疑)에서는 칠여전부터 적색로동조합(赤色勞働組合)조직의 책동을하다가 행방을 감초아버린 리재유(李載裕) 리관술(李觀述) 리종희(李鍾嬉)등 삼명과 중앙에 서로 접촉이잇는 인물들을 한두사람식 데려다가 참고로 심문하고 잇든중이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高)를 졸업하고 현재는 루상동 모씨의 며누리가 되여 가정부인으로 잇는 모젊은부인까지 불려다가 전후관계를 못기도 하는등으로 흥은여괴 저긔에서 탈문한 재료로써 은근히 조사를 진행해오더니 수일전에는 별안간에 활동을 개시하야 마도(馬渡)부장등세명의 형사대는 함남 안변(安邊) 신고산(新高山) 두곳에 출장하야 안변읍내에서 김칠성(金七星) 한지갑(韓進甲) 두청년과 신고산에서 안종호(安宗浩)등 청년세명을 붓잡아서 경기도경찰부로 데려다가 노코 일방으로 또 동경(東京)방면에서 건너온 청년 삼사명을 붓잡아다가 두고서날마다엄밀한 문조를하고 잇다

탈주한 전긔세명을 붓잡고저 경기도경찰부에서는 벌서삼년동안 전조선각지에 수사망을 느려노코 차저오든터인데 교묘히 땅미트로 피해다니는 리재유는 그동안 국외로 탈출하야 『모스크바』국제공산당에까지가서 모종의 보고를하고 다시 어떤지령을 바더가지고 조선에 잠입하야 방금 붓지펴서문초밧고잇는 그청년들과 서로련락을 취하다가 경찰의 눈을피하야 어데로 자최를 감초아버린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工業地帶로有望한 纛島도府에編入?

中央線과京春鐵道의敷設따라 躍進하는東部京城

동부경성의 발전은 금번에와서 대단히 급격한템포로진행중에 엇는데 그발전은 현재보다도금후 공업지대(工業地帶)로 지정되며 더활발히 될것은 명료하나 그중 새로운 조건으로는경성부산(釜山)간의 중앙선(中央線)과 경성춘천(春川)간의 경춘선이 모다 청량리(淸凉里)로들어오게 되며 청량리일대는 물론 왕십리(往十里)일대가 한가지로 발전할것인대 현재왕십리 청량리간은 공업지대로 발전한다해도 수리(水利)의 편리가다소 불편한감이 업지안라 그래서 더수리가 편리한 공업지대를 동부방면에서 택한다면이왕 뚝섬(纛島)으로 나가는것이 더 유리하리라는 관측이만타 뚝섬이라면 종래년년히 수해를입는 곳이어서 거주지로서도 대단히 위험한듯이 생각되고잇스나 수년래로 계속중인 한강치수(漢江治水) 사업에 의하야 뚝섬을 돌러쌋는 제방공사가 명년까지에는 완성될터임으로 금후수해의 넘려도업서질터이고 또뚝섬과 왕십리간의 개천에는 인도교도 곳가설하게 되여잇슴으로 뚝섬의 리용은 종래보다 훨신 가치(價値)잇는것이 되게되엿다 따러서 공업지대로 유망시되는데 경성부에서도 이방면에 착안하야 경성부행정구역에 편입시키지 안코는 안되리라는 복안을 가지고 잇서서 수삼년래로부터 편입될런지도 몰으는 형세에잇다

올림픽畫報 ❶

獨逸交通中央部鐵道總局發

全世界스포ー츠팬의視聽을 오로지 한곳에모흐고 오는 八月一日부터 十六日間 獨逸伯林에서 열리는 第十一回 世界올림픽大會는압흐로 二十日을남기고 戰雲은 바야흐로 濃厚하야가고잇는데 젊은 朝鮮의名譽를실허진 七勇士는 이미 戰地伯林에到着하야 待機中에잇서 期日이迫頭함을따라 우리의關心은 날로커저가고잇다 이에獨逸交通部中央鐵道局總局으로부터 올림픽에關한 寫眞二十二枚를 送呈하여 本紙에轉載를請해왓슴으로 今後 順次揭載키로하엿다 (寫眞上은 戰雲方濃한 伯林올림픽競技場의偉觀 ×票는 올림픽鐘울다라는塔、下는 올림픽村합티룹館에서열린 마라손代表의會合、人物×票上은 孫基禎、下는 南昇龍兩君)

濟生院에棄兒

구일 오후열시경에 시내신교정(新橋町)일번지 제생원(濟生院) 정문안에 누구가 나흔지두달가량된 계집아이를 버리고간것을 원내사람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게출하여왓는데 아이는제생원에서 보호중이다

"骸骨挾雜"關係者 兩名에體刑求刑

朴엔懲役一年、追徵金一六○圓 李鴻淳엔懲役十月

리태원 공동묘지 해골협잡사건 관계자 리홍순(李鴻淳)(중회)와 박영옥(朴永郁)(수회) 두명에 관한 속행공판은 십일오전아홉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염견(鹽見)판사심리 미원(米原)검사관여미테 열리여 사실심리를 마치고다음과 가튼 구형이잇섯다

▲朴永郁(懲役一年追徵金百六十圓) ▲李鴻淳(懲役十月)

三項要求를提出코 罷業團依然强硬

會社側은"賞與金支給"만承諾

"朝鮮織物"職工盟罷事件續報

【永登浦支局電話】 긔보=대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구일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고잇는 안양(安養)조선직물회사(朝鮮織物會社)공장 염색가공부(染色加工部)직공칠십명은 십일정오까지에도 그냥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잇섯다 구일밤여덜시부터 열한시까지 두시간동안 파업단대표로 권변룡(權秉龍) 변효옥(邊孝玉)김석재(金碩載)외두명이 동전(桐田)공장장과 맛나서 ▲상여금을 줄것 ▲일급을 올려줄것 ▲식사와 시설을개선할것 등 세가지 조목을 드려 요구하엿는데 공장장은 상여금은주겟다고 승락하고 그남어지는전부 응락하지안햇다 그래서 십일에 다시 맛나서 교섭하엿스나 상여금만은 주고 다른것은 응락하지안코 직공들은 한사람식불러다가 일을하라고 권유하고잇섯다 그런데 어쩌면 의외로 속히 해결될는지도 알수업는형세이라한다

"三年동안着釘햇든 日給을올려주!"

物價昂騰으로生活에威脅痛感

罷業한職工側의主張

●지음 쌀갑기타 일용물품갑슨무척 올라서 우리들의 생활에여간 위협밧는바 아닌데 삭전은 삼년동안 한번도 올려주지안코 그냥 륙십전밧게 안주고 또한 식사도 너무나 뿌니 분득이 파업을 단행하게되것입니다운운

"職工의要求는 들을수업소"

◇…桐田工場長談

우리회사에서는 영업성적이 조치못해서 작년에는 칠분 배당(七分配當)을 하엿고금년에는 오분(五分)배당박게하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직공들의 요구를드러 줄수업습니다운운

京元線에轢死

경원선 복계(福溪)에서 남행렬차가 십일 오전십시사십분 떠나 더가 동두천(東豆川)을 향하야 다섯키로의 지점에서 동일오후령시이십분경에 철로에서 놀고잇던 세살먹은 남아가 무참히 치여 죽엇다는데 현장은 선혈이 림리하엿스며 어린시체를 끼여안고 목을 노코 우는 모친의 정경은 오고가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케 하엿다고한다

"朝劇"放火犯에게 懲役八年을求刑

犯罪의動機와犯人의環境에는 臨席한檢事도同情

지난 류월십일일 오후세시오십분 부내 인사정(仁寺町)조선극장에 불을노아 삼시간에 다타게한 방화사건 피고 전주부청수정(全州府淸水町) 림종후(林鍾?)에 관한 제일회공판은십일 오전 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근등(近藤)검사관여 관선 산중(山中)변호인 립회미테 열리엿다 사실심리에 들어가서 방화한동긔와 원인이 어데잇느냐는 재판장의 심문에대하야 피고는 조곰도서슴치안코 눈물겨운목소리로 피고는 림철주(林喆周)의둘재아들로 태어나서 귀엽게자라나든중 여섯살때에 어머니를여이여 안부모의 사랑에주려오든터에 그가 열한살때에 그는 계모(繼母)를 맛게되엿는데 계모는그를몹시 학대함뿐만아니라 계모가들어온후 부터는 그의아버지의 태도조차 랭정해저서 가정불화로 항상눈물겨운 생활을하게되야 학교도 전주모중학교에다니다가 중도에 퇴학하고 작년시월십일에는사랑업는가정을버서나서 독립생활을하여볼생각으로그의아버지돈 사백오십원을 몰래가지고 만주로가서 장사를하여보려하다가 그것도 뜻대로되지안흠으로 금년이월이십구일 집을다시 차저 어왓는바 그의아버지는 너가튼 자식은 집에들일수업다하야 집에못잇게함으로 할수업서 그의 맛형되는 림종봉(林鍾奉)의집에 가잇다가 그래도 독립생활을하여야하겟다는 생각으로 그의형에게서 돈사십원을 어더가지고 지난오월조순에 서울로 올라와서 채소장사와 계란장사를 하여보앗스나 역시결과가 조치못하야 그는 미천을 거의다집어먹엇다 이때에 그는 자포자긔에 빠저 자살하려고 한강까지 갓스나 물을 바라보매 공포심이 생겨서 죽지도 못하고 절도를 하고 형무소로 가려하엿스나 사람의물건을 훔친다는것은 어째사내답지못한 생각이나서 방화를하야 형무소를갈결심을하고 륙월팔일 종로이정목김포의잡화상에서 성냥두갑을 사가지고 다니다가 류월십일일조선극장에 구경을갓든바 변소엽헤 구멍이낫는데 그곳에 휴지가 만히싸혀잇슴으로 불을노면 조케다는 충동이생기여 불붙노코나서 불이 타올르는것을 보매 무서운 생각과 잘못되엿슴을 하엿다는 량심의가책이 심하야 얼빠진사람모양으로 탑골공원으로 종로거리로 헤매다가경찰서에 자수하엿다고 조곰도서슴치안코 사실전부를 시인하엿다 피고의사실시인으로간단히 심리가끗나매 검사는 피고의동긔에는 동정할점이 잇스니 백주에영화관에 불을노아 오만오천원이라는 큰손해를 내고 또만흔사람에게 위험을미칠뻔한 사실로보아 징역팔년에 처함이 적당하다고 구형이 잇자 신중변호인은 이사건은 보통 방화사건과달라 아모 사리사욕 원한이 잇슴이아니라 그가 감옥으로 가기위하야 처를 구하겟다는좁은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사건으로 그의가정에 사랑이결핍된데 원인한것인즉 피고의 동긔와 또범죄리면에 아모악의가 업섯다는점을 고려하야 관대한 처분을 하기를바란다고 열렬히 가벼운형을 가하기를 희망하는 나머지에 피고의아버지도 후회하고 후처(後妻)를 내어보내기로 되엿다는말을부언하엿다 그런데 언도는 오는십칠일에하기로되엿다

交通事故兩件

구일오후 아홉시이십분쯤에 시내 서소문정(西小門町)삼십사번지아페서 시내합정(蛤町)일백십칠번지에 사는 조선운수회사운전수 류홍식(劉弘植)(三三)이가『리야카』를타고 가다가합정(蛤町)이십번지에사는 박세환(朴世煥)(三二)이가타고오든 자전거와충돌한후『리야카』의 등불을끄고 도망하다가 얼마안가서 서소문정 이십륙번지에사는 중국옷직공담장(譚長)(三七)을치어서 제일피해자와제이피해자의 두사람에 에 각각약 이주일간을요할상처를입핀다음 어듸론지도망하여버렷섯는데십일 서대문서원에게체포되여엄중한 설유를바덧다한다

십일오전여덜시이십분쯤에시내서대문경찰서 아페서 리룡진(李龍鎭)(三七)이가 운전하는 경인(京仁)三三『트럭』화물자동차에 청엽정(靑葉町)이정목 칠번지에 사는 박긔명(朴基明)(三九)이라는 칠순로인이 바치어 약일주일을 요할부상을 당하엿다한다

自動車自轉車衝突 自轉車탄사람慘死

十日正午、鍾路二丁目에서

십일오후령시사십분경에 시내 종로이정목 중앙긔독교관(中央基督靑會館)압 로상에서 동대문쪽으로 달려가든 종로삼정목『히까리·택시』모석천(牟石千)(三○)이가 운전하는 경(京)구천일백이십삼호 자동차가 동대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든 시내 인사정(仁寺町)이백사십일번지 경제사(經濟社)라는 상점의 외교원 김명선(金命善)(三○)이를 정면으로 치웟는데 자동차전면에 머리를부듸처 혼도한것을 곳부근 민중의원(民衆醫院)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삼십분만에 드듸여 절명되고말엇다 소관종로서에서는 현장을검증하는 동시가해자를엄중취조중이라한다

中國人野菜商집에 兇器든覆面强盜

十日새벽大興町에서卅圓强奪潛跡

申告느저서搜查困難

최근 한달미만에 시내서대문서관내인 연희정(延禧町)과 서교정(西橋町)에서 중국야채상을습격하야 그때마다 반드시 흉긔를드려사람을 상케한 흉악한강도사건의 범인에대하야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이래맹활동을 게속하고 잇든이때에 수사대의활동을 비웃는듯이 련접한 룡산서관내에서 꼭가튼 수단과 방법의 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강도공포시대를 연출하고잇다—십일오전 령시반쯤되여시내 대흥정(大興町)이십륙번지 국지농장(菊地農場)의 한구석을 빌려가지고 야채장사를하고잇는 중국인 두숭적(杜崇積)(三九) 의집에 한복면 삼인조 강도가 빗장을 질는 정문을 열고 들어와 끈하게 자고잇든 전긔 주인과그의동생 숭후(崇?)(六九) 숭수(崇須)외 두사람을 굴근색기로 묵거노코 날카로운 식도를 빼여들어 돈을내라고 협박함으로 숭두는 돈이업다고 대답하자그의아래배를 찌르는 바람에 겁이나서 돈은 삿자리미테 잇다고하자 그들은곳 현금삼십사원을 홈처가지고 나가버렷다 강도가나간후 이들은곳부근주재소에신고하엿스나 그주재소가 마침서대문서 관내임으로소관룡산서로가라하므로 그들은 도보로 룡산관내로가기때문에 이급보가 룡산서에 도착한것은 사건발생후 세시간을 지낸 오전세시반이엿스므로 그동안에 범인들은 유유히 종적을 감추어버리고만 것으로 급보를바든 룡산서에서는 곳 비상소집을하고 성긔사법주임(星輪司法主任)지휘아래 아현주재소(阿峴駐在所)에 수사본부(搜查本部)를두어 비상경계망을 느리고 맹렬한활동을 게속하고 잇는중이다 그리고 흉과에너머진 숭두는곳적십자병원에담어다가응급치료중이나원체피를만히흘엿기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西橋町에낫든强盜와 手法이매우恰似

西門署에서卅餘名警官派遣

龍山署도活動猛烈

별항십일오전령시 삼십분쯤에대흥정(大興町)중국인 농가에침입한삼인조강도에 대하야 시내서대문서에서는 지난륙월 삼십일동서관내 서교정(西橋町)에서 일어난사건과 동일한수법이며 피해자의 공술에 의하면 범인의 인상과 신장등이 매우흡사한점이만흔고로 일시정돈상태에 빠젓든 서대문서 사법계 에서는 아연 긴장한 빗을 띄이고 십일새벽이래 정사복 경관삼십여명이 서교정(西橋町)과 대흥정(大興町)방면으로 출동하엿다하는데 범인체포의 개가를부르게 될것은 실로서대문서가 될것인지 룡산서가될것인지 자못흥미잇는 문제이라한다

天氣予報

槪況 猛烈한 低氣壓은 朝鮮海峽과日本海東部에잇고 滿洲와 朝鮮의氣壓配置는 매우不安定하다 七六二粍의高氣壓은 千島로부터 北海道에 퍼저서南洋方面도 氣壓이 좋으라 明日도 氣壓配置는 不安定하기때문에 흐릴것이요 沿海部는 안개가끼일것이다

豫報 今明은 흐릴것이요明日도曇天이다

昨日 最高 二三度八
同 最低 一九度九
今朝 最低 二度、六
今日 正午 二六度○○

運動競技

軟式野球大會 京城豫選卅二팀參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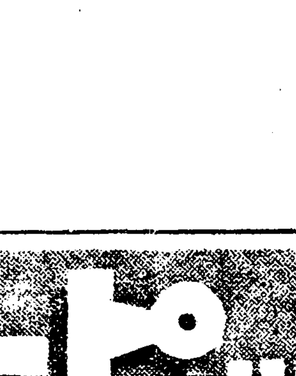
全朝鮮軟式野球聯盟主催의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優勝大會京城豫選戰은 十二日부터 十四日까지 사이에 京城球場과龍山球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團體는 三十二팀에 達한다하며 對陣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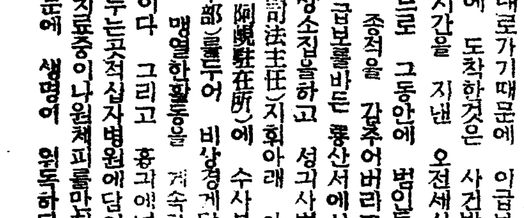
▲十二日 ▲朝運支店…明靑(九時)、B朝運本社…電車課(十時半)、C專賣局…雙葉(正午)、D鐘成…早朝倶(一時半)、E水道課…鐵道局經理(三時)、F三中井…이글(四時半)、G京城工場…儲銀(六時)以上京城球場 H遞和會…殖銀(九時)、I商銀…朝鮮火災(十時半)、J貯銀…善友(一時半)、L近澤…醉和(三時)、M工務…總督府(四時半)、N巨人軍…FD倶(六時)以上龍山球場 ▲十三日 O映畵人…럭키ー(四時半)、京電…※※倶(六時) ▲十八、九日 第二回戰▲廿、廿一日 第三回戰▲廿二日 準決勝戰▲廿四日 決勝戰(四時半)以上龍山球場

世醫專山岳部 太白、金剛에登攀

世醫專山岳部에서는 이번夏期休暇를利用하야 太白山脈及金剛山脈에 登攀하기로되여 十日에京城을 出發하엿는데 一行의『멤버』는다음과갓다 ▲引率者=崔永泰講師 ▲團員=尹玉龍 金東胄 李東薰 李德鎬 洪福根 盧天恩 崔永甫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 體質과副感染菌을따라 各各다름니다 慢淋、血淋、肉淋、砂淋、骨淋을五淋이라하며 甲藥이乙에는無効하고 乙藥이 甲丙에 不適한事實은 本劑는 多數漢藥에 强力殺菌劑와 高貴洋藥을 豐富히配合하여 偉効的 效力을가진本劑를 試用하시요(無代說明書進呈) 定價 一圓 三圓七十錢 全國有名藥店에 無할時는 本舖에 藥書로나 振替로注文하시압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振替京城一二三四六六番

國産 カッピー香水

斷然 他品의追從을不許하는品質! 優秀高尚한芳香! 國産カッピー香水 時代가왓슴니다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東京 田端豐香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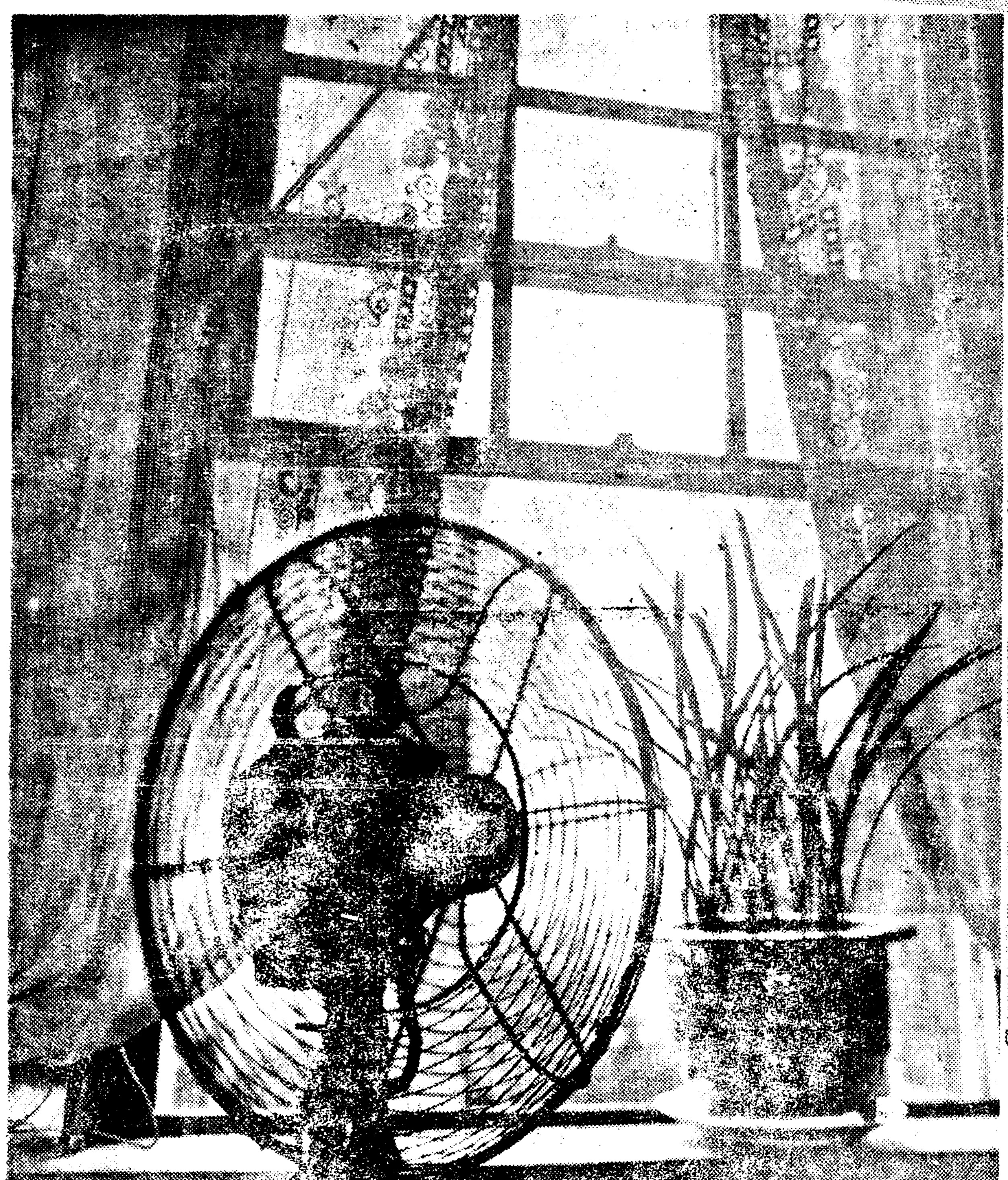

눈은學問의「窓」 姿勢는곳바로、眼鏡은正確
各醫科病院指定
大學堂眼鏡店
眼鏡·双眼鏡 카타로그進呈(郵二錢) 京城本町二丁目 電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一二九

짠글의王 프랑크바크氏大冒險作品 RKO라듸오超特作日本語版 生命을버리고的에猛獸生捕의危險映畵!! 名畫 로만스의街 監督…스데반로바스氏 美男…루린시스레라氏 消ゆる短劍 監督…太田辰三氏 主演…阪部九州男 大都映畫特作連續時代劇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若劇 十一日十二日二日間 御入場料三十錢均一 ▲久遠の誓ひ テムプルトン·バークー主演 パ社 ▲最後の駐屯兵 榎本健一主演 パ社 ▲ケンのぐりぐり頓兵衛 L.C.P 十三日(月曜日)都合ニ依リ休館致シマス P.O.L映畫と高級洋畫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映畵界無類의歷劍巨豪篇 RKO七月九日부터納凉特別大公開 世界大豪文學의覇王아렉산다듀마原作 巨匠로란드V리ー氏大作品! 三銃士 無宿의狼群 お洒落判官

涼味慄然!



사진설명=경성운동장풀의 장쾌한『따이빙』(右上)인조빙회사창고속의 어름산(右下)하동(河童)들로 세월맛난경성운동장풀(左上)시원한『메가니즘』선풍기(左下)인조폭포라할가『쇼워』미테 시원한풍경(中)

興味溢れる 大懸賞

白粉과크림과化粧水의綜合作用을가진거장새로운化粧料로서젊은近代的女性層에絶對한人氣가잇는당고도―란의大懸賞!

應募方法 以上寫眞中五人의 스타―의名을 當該國名下에 써서 라(○에文字記入)

日本……高○早○
アメリカ……ジー○・パー○ー
ドイツ……マ○ネ・デイ○○ッヒ
スエーデン……グ○タ・ガ○○
フランス……シ○ンヌ・シ○ン

應募送法 答案에는반드시『당고도―란』의레텔(紙에 貼付)을넣어중거삼고) 固形당고도―란의 圖中說明書送付送呈하라. (封筒에는三錢切手貼付) 正解者中에서抽籤하야 (警官新聞社員立會) 左記의賞品을贈呈함

締切 昭和十一年八月三十一日
發表 昭和十一年十月上旬 本廣告揭載新聞紙上
送り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株式會社 中野進之助商會懸賞係

銀幕의 人氣者 올림픽大會
五人의스타―는누구누구!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各國代表選手
高杉早苗 (日本)
ジーン・パーカー (アメリカ)
マレネ・デイトリツヒ (ドイツ)
グレタ・ガルボ (スエーデン)
シモン・シモン (フランス)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란一個로 이大賞品이當籤

壹等 拾名 高杉早苗好み特選訪問着 ジーン・パーカー好み アフタヌーンドレス
貳等 五十名 絹夜具・洋家具セット・三面鏡
參等 百名 高級銘仙・レシュウ入本絹名古屋帶 新型旅行鞄・フランス人形
四等 二千名 晴雨兼用パラソル・美術置時計 特製ハンドバッグ (以上各等一點自由御選擇)
五等 殘り全部 白粉下のいらぬブルース(定價壹圓)壹個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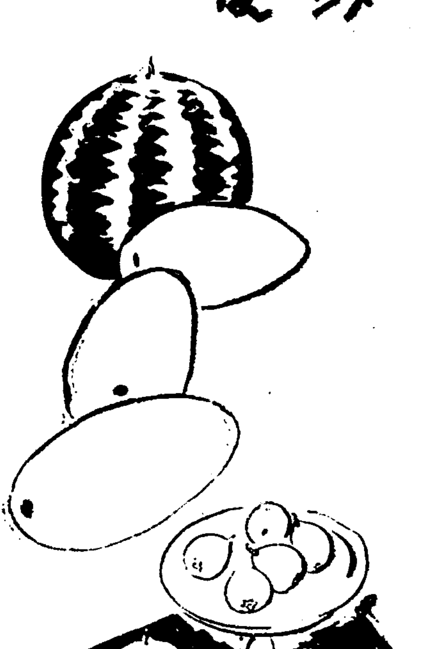
期間中タンゴドーラン及固形タンゴドーランお買上の節五等賞品藥用化粧水鳳鳥チーゼル(十五錢の品)壹本宛洩れなく進呈致します

固形 タンゴドーラン
姉妹品 (七色) スマートな容器入 高級パフ付
各色一個 (定.60)

TANGODOHRAN
얼굴빛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되는 タンゴドーラン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굴이하얀분에는……白色
얼굴이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굴이거문분에는……早晩色
얼굴이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굴이붉은분에는……新鮮色
夭嫦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五十錢

범나비의꿈

家庭



가시만생겨노면 꿀갓튼 장맛도 결단

무서워피하랴? 더러워피하지 이러케장독을게엄하자

구데기 무서워 장을 못 담으랴는 속담도 잇습니다만은 아모래도 녀름장에는 구데기가 한 걱정입니다。녀름장에는 의례히 구데기가 나는것으로 처서 심상히 보시는 분도 엇지 안하서 잇스나 된장이고 고치장이고 구데기가 움을거리어서는 아모래도 마뜩지를 안습니다。그런데 가튼 구데기라도 누에고치에 생기면 수렝이요 초에 생기면 눈이요 장에 생기면 가시라고 하야 말부터 다르게 합니다。막중한 장에다가 구데기와 가티 더럽고 추한 이름을 부치기가 아모래도 마음에 걸리어 슬쩍다른 이름으로 일컷는 모양입니다。그러지말고 애초부터 가시를 못 나도록하는것이 어떳습니까?실지로잇서 그것이 깨끗한 노릇이아니겟습니까?

장에 가시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자면 장 항아리에다가 파리가 쉬를 쓸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물론 장그속에 쉬가 숨어잇다가 까나오는수도 업지는 안치만은 대개로 장항아리까에 쓴것이 까서 들어가게 되는것입니다。그러니까 장항아리를 꽉 더퍼만 둔다면 가시가 날 까닭이 업지오만은 그러타고 장을 영영 해스볏을 보이지 안는다면 장맛이 또 고만 글러지기가 쉽습니다。장항아리는 열어서 해스볏은 해스볏대로 보이되 쉬를 쓸지 못 하도록 하여야 만 하는 것입니다。

×

첫재로 파리는 지적지적하고 깔끔치 안한데다가 쉬를 쓸려고 차지러 다닙니다。그런만큼 떠다 먹을때 먼더라도 안과거죽을 한께 질흘치어 노코는 항아리가장살이와 장독근처를 말끔하게 치워 노하야 합니다。

둘재로 파리는 해스벼치 쨍쨍하게 버치는데서 쉬를 잘 쓸지 안습니다。그런만큼 해스벼치 반쪽 들때는 항아리스두겅을 열어 노핫다가라도 해스벼치 지는데 딸아서 곳 뚜껑을 덥펴야만 합니다。

셋재로 아모리 쉬라도 전지독인 소금에는 결단입니다。장우를 맨소금으로 꽉 덥펏다가 떠올때 조금 헤치엇다가 다시 아므르도록 하는것이 조습니다。

넷재로 해벼치 쪼엿다고 하더라도 꽉 안심될것은 아닙니다 아조가는철망이나 고운생사흔겁으로 꽉 봉하야두고 해스벼츨 보일때로 그러케봉한채 보이는것이 조습니다。

×

그러케 주의하기 이전에 이미 가시가 생기엇거나 또는 그 장스속에 쉬가 숨어잇다가 가시로 되어 나오거나 할때는 어찌합니까?물론 장이 정하기는 트자에 고를고 불이오나 그러타고 그 아까운 장을 그대로 전부 내버리는 수야 잇습니까? 만일 어느 한편만이 생기엇거든 그 편만을 떠내버리는 수밧게 업고 또 그것도 아깝거든 손으로 자서만 끌라 버리기라도 하여야 합니다。이왕 장맛을 버릴작정 치고 소금을 앙구어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니올씨다。

가정의화

살빠지는약

問 금년십칠세소년으로 살이 너머쩌서 매우고롭습니다 더구나넙적다리의 부분이 더욱심히굵어서 운동을 할때에는 다리가 뻑뻑하야 잘놀릴수가 업고 또 체조시간에는 붓그럽웁니다 살내리는 약이잇스면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또무삼운동이 적당합니까 음식의주의는 엇지하여야되겟습니까(安國洞 一女性)

答 비만증인것갓습니다 비만증에도당선과가티 처녀시긔에오는것은、다른내분필선(內分泌腺)과관계가되는것인고로 단순한비만증으로만생각할수업습니다。한번 내과전진찰을 바더보십시요 음식으로라도 우선주의할것은육유는 금하고 초식을주장하여자시도록할것이며 한주일마다 두번씩하제를복용하여 설사를하게 하도록하십시요 특히 다리의살만빼는수는업습니다 운동은무삼운동어떤지무관할것입니다(聖母病院長 朴秉來)

피부가두거워

問 저는 이십세된 남자인대 지금까지 일절 일을 하지안코 자라낫는대 어렷슬적부터 자연히 일하는 사람처럼 살가죽이 두렵고 손고락과 팔꿈과 발뒤축이 두터저서 흉합니다 어찌하면 조흘까요(安YS生)

答 일하지안하엿는대 피부가 두겁다고요 당신이 말한 부분은 원래가 두거운곳이며 또는 목욕을 하지안하면 더욱 때가 끼기 쉬운곳입니다 만일 다른 피부가 두껍다면 피부견고증(皮膚堅固症)이라하며 특별한 치료를 하여야될것입니다(聖母病院長 朴秉來)

독사에게물린뒤 발목이아픈데

問 저는 이십오세의 남자이온데 사개월전에 불행하게 독사에게 바른쪽발목을 물렷습니다 몹시 아프며 부어올라옴으로 응급처치로 다리를 졸라매고 사실육시간만에 의사치료를 밧고 지금은 부과도 업서젓스나 졸라맨곳에 근육이 돌가티 뭉처 혈액의 순환도 조치못할뿐아니라 발목을 구피랴면 땡기어 행보를 하기는 하오나 절름바리와가티됩니다 어떠케하면원상회복이되겟습니까(慶南거정生)

答 열긔치료(熱氣治療)와 맛사ー지(摩擦療法)를 실행하야보십시오 부은거와 발목이 땡기는 증세도 나을것이오 차차 원상회복이되야 보통시와가티 보행할수 잇슬것입니다(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흰구두의손질

먼저가죽의성질을 잘안뒤에하십시요

한말로 흰구두하지만 원래가죽을 다루때 여러방법으로 다루니까 그방법에따라 가죽의성질도 지연히 달라질것이니까 구두의 손질과닥구는방법도 구두의가죽을 보아서해야할것입니다 요새 시장에만히 나도라다니는 흰가죽은 명반(明礬)으로다룬것『포르마린』으로다룬것『크롬』으로다룬것 그외에 여러가지가 잇습니다만 가장 만흔것이 이세가지 종류라고 볼수 잇습니다

◇

명반으로다룬 가죽은 물에 약한것인데 비에 젓는다든지 물로 씻는다든지하면 명반이 거트로내소사버려 생피(生皮)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더운물은 아주 지미적어 섭씨오십도되는물에들면 생피가되어버립니다

그다음은『포르마린』으로 다룬것인데 이것은 백도되는 물까지는 괜찬치만 너무 허치허치 해지기쉬움으로 이런 가죽으로 맨든구두는 잘해야 한여름밧게 못감니다 따라서 다소 갑시 좀 싸다할지라도 사신놓것이 못됩니다

그다음 『크롬』으로 다룬가죽을 말슴하면 이것이 먼저의두가지보다 비교적나흔편입니다 우리가 얼른보아서야 무엇으로 다루엇는지를 알기어렵지요만 『크롬』으로 다룬것만은 약간푸른비치 돌기때문에 비교적 알아보기쉽습니다

◇

이번에는 구두손질하는법인데 다 가정에서도할수잇고 엇던방법으로·가죽을다룬것이고간에 적용할수잇습니다。——

먼저 흙을털고 깨끗시 한다음 우유또는비지(두부 맨들고 남은 비지)로 닥그십시요 그러면 우유나 비지에 잇는지방이 가죽에배어드러 가죽을 부드러게합니다 그리고 거든로는몰랑몰랑한식빵으로 문지르거나 밀가루에 물을약간처서 동글동글한고무처럼 뭉처가지고 살금살금문지르면 먼지를깨끗이닥가내수잇습니다

◇

그다음은구두약인데 가죽을깨끗시한다음에는 회장을시켜야할것이니『酸化亞鉛』을 아주가루로해서 분을맨드러거기에다가 피마자기름을 처서 반죽을해바르면 조습니다 집안에서 하실수 업스면 약방에부탁하서서 이약을 맨드러달라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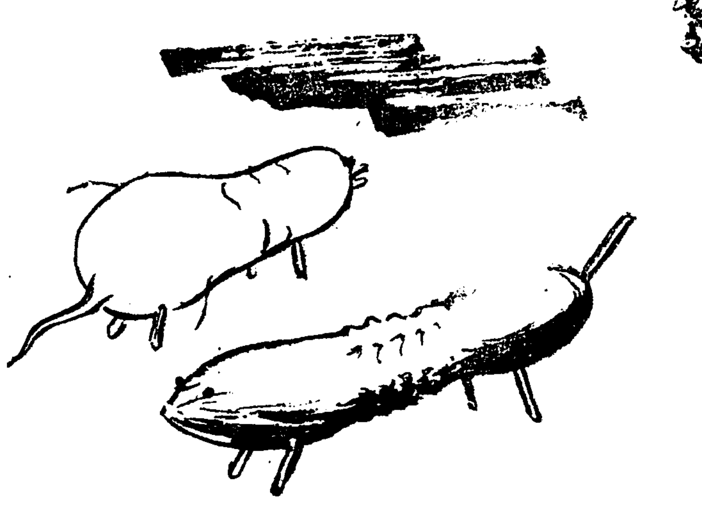
넷쌍동이생일은 넷이함목

미국키ー쓰」란 사람의 집안에서 난 네쌍동이 출생그당시에 상당한화제꺼리가 되드니 그들이벌서 자라꼿다운나히스물한살이되엇습니다 얼골도한판에 백인듯이똑갓지만 탈업시 고시란히 이러케자라기도 참말어려운일입니다 지난번에 만이십일세되는 생일날을 마지햇는데 네사람의생일은 론한데합처서 차려먹엇습니다 모다 대학교재학 이번여름에는 저유명한『디온누』의 다섯쌍동이를 방문한다고 햇는데 맛난다면 한력사적 장면이되겟지요?

우리개는 무슨갠지 아십니까。이슬을 먹고 자라 새파란빗치애요。허리가 길다라코 울퉁불퉁한것이 아마 룡이될까봐요。

우리돼지는 옥돼지 온몸이 하얏코 머리가조곰푸릅니다 살은 쩌지만단단하고 성미도맵습니다。

(글쓴사람 박치호)



童話 색기따라죽은 어미원숭이 ⑥

(二) 崔秉和

도라다보다—색기가업다。이리 슬다 또 휘둘러보다—그래도업다。돌구석구석까지 휘둘러보면서 도라다닌다。문간까지나가보아도업다。

장절에드럿지만 지금 부르지즌소리가 희미히 저기아돌의소리인것을만 어미원숭이는 안침부질을 못하면서 두번재 돌흙구석구석 차저다니면서 큰소리로 불러보앗습니다。그러나 대답이 업섯습니다。

문득 이제야 생각난것가티 어미원숭이는 잰물독으로 뛰여가서 발도둥하드니 독속을 드려다보앗습니다。그러자 원숭이는 펄펄뛰드니 슬픈소리로 울면서 독울서너번 빙글빙글 돌앗습니다

조곰잇다가 또 발도둥을하야 독속을드려다보고는 펄펄뛰드니 슬픈소리로 울면서 독을 서너번 뺑글뺑글 돌고잇섯습니다。

독속의 뜨거운 물미테는 뺄거케된 색기원숭이의 죽은몸둥이가 가려안저잇섯습니다。

『웨그러니?』

『웨그러니?』

집에도라온 주인내외는 어미원숭이가 날뛰는꼴을보고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러케 무럿습니다。그때는 어미원숭이는 미친것가티 슬피블르지지면서 돌안을 허둥지둥 뛰여단이고 잇섯슬때엿습니다。

하라버지가 간신히 어미원숭이를 붓드러가지고 큰소리로 무럿습니다。

『웨그러니? 응!웨그려?』

어미원숭이는 하라버지손에서 빠저너오드니 독으로가서 돌을 뚜들기면서 더한층 큰소리로울엇습니다。

이때야 범물소 무슨일이일어낫것을 깨다른 내외가 그독을 드려다보고는『아!』하고 엇지할바를 몰낫습니다。잼물끌는소리는 들리지안헛지만 잼물속에는 색기원숭이가 빠저죽은것이 보엿습니다。

『독가장자리에서 놀다가빠진것이로구나。』

『아이구 가엽서라。』

주인내외는 이러케 말하면서 언잔어하고잇는데 어미원숭이는 독을 뚜들기면서 두사람을보고 절울하고 잇섯습니다。

『여보 우리들보고 제색기를살려달라고 하는거구료』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케 말하엿습니다。

『아마 그런가보오。』하고 하라버지는 어미원숭이 억개에다가 손을대드니 사람에게나 타일는것가티 말하엿습니다。

『애?불상하지만 네색기는 아조죽엇다。저혼자서 독에올라가서 놀다가 떠러저죽은것을 어떠케하니。자 자 울지말고 진정해라。』이말을드른 어미원숭이는 울그럼이 주인얼굴을 치어다보드니 별안간 부억으로 뛰여드러갓습니다。

깜작놀난 주인내외는 우둑커니 보고만 잇스려니깐 어미원숭이는 솟뚜겅을 가지고나와서 그것을 독에덥허노코 또 주인얼굴을 치어다보앗습니다。

『이러케 해두엇스면 아모일업슬것을하고 우리들에게 아르켜주는것이로구나?그러타、우리가 잘못햇다。용서해다구。』

할머니는 참을수가업서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케비럿습니다。

『네말이올타。』하고 하라버지도 훌적훌적 우럿습니다。조곰지나서 어미원숭이는 독을두들기면서 절울하엿습니다。

하라버지는 색기를 꺼내달나는줄로알고 솟뚜겅을열고 죽은색기를 꺼내주엇습니다。

어미원숭이는 색기원숭이를밧자 슬픈소리를 지르면서 팍 끼여안헛습니다。웸물을 적신불이 주루룩 떠러젓습니다。어미원숭이는 눈출을모르고 더한층 팍 끼여안헛습니다。

『얘、네색기를 파무더주마。』하고 할머니는 이러케 말하얏습니다。그러나어미는 우름을 끗치지안헛습니다。

『그럼 네마음대로해라。산으로 데불고가렴』하고 하라버지도 말하엿습니다。그래도 원숭이는 우름을 끗치지안헛습니다。

한마리김생과 사람두사람은 서로마주보면서 훌훌느겨울고잇섯습니다。

얼마뒤에 어미는 색기를껴안은채 가만히 거럿습니다。그러나 산으로는안가고

『어디로가나?』주인내외는 이러케말하면서 그뒤를 따라갓습니다。

어미원숭이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시름업시 거러갓습니다。

어느듯 길이회여지자 훌너가는물소래가 요란히 들려왓습니다。다리중간즘오드니 원숭이는 거름을멈추엇습니다。다리아래물은 흰거품을내면서 살가티 흘너내렷습니다。원숭이는 휫긋뒤를도라다보고 주인내외에게 절을하는것처럼 꿈벅하드니 측시 바람에불리는입사귀가티 몸을날려물속으로뛰여드러갓습니다。

산풀에서 세차게흘러내리는물이라 주인내외가 급히뛰여와서보앗지만 그곳에는 원숭이모자는 보이지안코 다리거뤼질자만 비치여잇섯습니다。

『남무아미타불、남무아미타불…… ……』하고 엽풀을 외이는 주인내외의얼골에는 눈물이엄새엄시흘럿습니다 (第六話終)

小說 보리방아【七】

蔡萬植 作 崔賢郁 畵

『못쓰것네』

똥똥한 여인은 이러케 대답을 한다。

『못쓸것이 이러케 가난헌·집에서 며누리를 으더가구보면 개개 딸이란말이여……허기사 규수는 얻똣보매 괜찬헐것갓네만은……』

『내말두 그말이요 그리두 웬만치 칭이나아말이지 이렇구서야 새악씨가 무엇 움식하나 바느질한갈 벌수가 잇섯겟소? 부억에서 진일이나허구 보리방아나 찢쿠 허느라구……』

가얄핀 여인이 이러케 자상스럽게 소견을 말하는것이다

정씨는 등에서 식은땀이 옷삭 나고 아피 감갑해젓다

분한 깐으로는 쪼차나가서한바탕 욕이라도 해주고 십호나 체면에 그럴수도 업는것이다

정씨는 그래도 당장 변해진 안색을 보이지아니하려고 잡시 부엌에 더 머뭇거리구가 캑ー기침을하고 [illegible]

주인이 나오는것을보고 그나내들은 일어섯다

『왜 벌서 일어스세요? 땀이나 드려서 좀신진지나 좀 잡숫구가시지……』

정씨는 주인된 도리로 이러케 권하기는하나 그들이 속히 일어서는것이 속으로는 시언햇든것이다

『아이구 그러케 폐를 찌처서 쓰나구요』

똥똥한 여인이 이러케 넘우 고지식하게 사양을하고 발서 마당으로 내려섯다

정씨에게는 그것이 더욱 알미웟다 가난뱅이 집에서 무얼그 푸달진 겸심을 어더먹으랴시퍼 그러는것가터서——。

『따님두 퍽 조케 두섯소』

갸얇힌 여인이 이러케 치하를 한다 정씨는 더욱 아니꼬운생각에 그저

『멀이요』

하고 코대답을 햇다

용히는 부엌에서 꾸어온 밥쌀을 씻다가 우둑허니 서서사리문으로 나가는 그들을 바라다보앗다

『왜 저럿케 일죽 갈가?』

용히는 궁굼햇다

그 녀인네들이 선을보러 온줄을알고 부끄러워서 뒤울안으로 뛰어돌어는 갓스나 속은이상하게 동요가 생기엇다

물론 집안이 가난이 괴죄ㅣ흘으는것 필사나운 주제를하고 방아를 찌려고 섯다가 들킨것이 또한 부끄럽지아니한것은아니나 한편으로는 늣깃이 기뻐기도햇섯다

조금전에 어머니가

『……시집을 가거든 부자집으로 시집을 가거든……』

한 그말이 도루 생각이낫섯다 선을보러 온 여인네들은 갑데업시 부자집 여인네들이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부자집으로 정말 시집을 가게되나부다십헛든것이다

부자집으로 시집을가면?

이럿게 용히는 생각해보앗슬나 어떠다는것은 알수가업섯다 그것은 용히가 부자로 살어보지를 못햇스니까 몰으는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봉틀을 사가질수가잇고 그리고 시방사는것처럼 가난하지는 아니할것이고……

그러고 새서방은?하고 까지 용히는 얼골을 수사로 붉히가며 생각해보앗다

그러나 그것은 더구나 알수가업섯다

그러면서 용히는 한편 나그내들을 겸심을 대접해야할것도 생각하고잇섯다

쌀은 뒷집 막내네집에서 취하고 반찬과 그릇은 옥네한테 기별을해서 빌려오고 그럴라든참인데 어머니가 나와서 이것저것 식히니까 그말을듯고 하는체햇지만 속은 아주 우렁이속가리

그래그는 불야불야 쌀을 취하고 또 막내네를 식혀 옥네한테로 이것저것 보내달라고 기별을하고는 밥쌀을 씻는데 나그내들이 갑작히 도라가고보니 맥도 풀리고 궁금도햇다

어머니는 들어와서 용히가 쌀을 씻다만것을보고

『밥 허지말어라』

하며 아주 조치안훈 기색이다

그러고 도라서면서 혼자말로

『망할년들! 가난허다구!』

하고 혀를찬다

용히는 눈에서 눈물이 핑도랏다

가난하게는 살엇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귀염미테서 남의해피나 정가를 밧지아니하고 자란 용히다 그런데 이날 공연히 두 여인이 와가지고는 용히에게는 생전에 당해보지도못한 멸시를 주고 훈연히 도라간것이다

솟아올으는 부끄러움과 노염에 용히는 훠혀 늣겨울엇다 그러듯 아니꺼운 심정을인것도몰으고 혼자 조아서 먹엇시 납듸것도 또한못견데게 안타가웟든것이다

머리가압흐고疲勞된때에

ノーシン

主婦의 머리는 疲勞된다

衣服깜사드리기와 些少한家庭일로이것저것主婦의頭腦는連續活動하야쉴틈조차업다。그리하야主婦의히스테리ㅣ와憂鬱症은거이、이제로부터생기는頭腦過勞가原因이된다。

明朗한 家庭을이루어家長이돌아오기를기다리고、子女들을發育식히는것은、그날그날의疲勞된氣分과頭痛、頭腦疲勞를解消식히며、主婦自身이于先頭腦가 明快하여지지안어서는안된다。

그런데는 ノーシン을服用하는것이 第一良策이다。

ノーシン은 從來의頭痛藥과判異하야오직 頭痛을速히治癒할뿐아니라、다시 頭腦의疲勞를恢復식힐獨特한 作用을갓고잇다。

特히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도으며 心臟을튼튼케한다 또한胃腸等에는安全無害함으로써 頭腦의常備藥으로써 理想的이다

主效 頭痛·頭腦疲勞 頭重·心氣倦怠 上氣·頭內朦朧 眩氣·船車멀미

價藥 (錢) ·30 ·50 1.00 2.00 5.00

◎全國藥店과데파ー트에잇슴

한여름밤의꿈 ②

童貞의復讐와 現幻된辨證法

鄭 權 陽

나라는人間이 원체神經質로 되여먹은지라 每日가티 꿈을꾸기는한다。그러나 元來가 남달리 이러타할特徵을 가지지못한 가장平凡한 한개의凡夫임에틀림업스니 每日가티꾸는꿈中에서라도 馬鹿하고 滋味잇는 꿈하나 차자볼길이업다。

別로 신통치는안흐나 다음가튼 꿈이잇다。몹시도 苦痛이 甚한 듯이보이는 患者하나이잇다。尿道에서 고름이나고 甚히아프다는 것이다。淋疾이다。터질듯이 아픈局部를움켜쥐고 나에게呼訴하는것이다。

그몸솜씨때문에 이지경이되엿다는것이다。『사랑을하느니 건는 방울하느니하드니 自己의厭棄物로서 新賓한나를 厭棄한끄레 마츰내 이지경이되고말엇읍니다。나는 모든女子들에게 反感을가집니다。모든女子들에게 復讐해야하겟읍니다 이런몸을病을녀준그들에게는 맛당히 이病을도로 을마중으로써、앙갑풀할수밧게업습니다。』

이가티말한그는、이제부터 目的地로闖할터이니、先生님도 가티가자는것이다。

나는、엉뚱한 그의計劃을 나물하는同時에、여러가지로、타일르려고하엿다。그러나、이러한氣色을 본그는、얼골에 핏대를세우고、怒氣가騰天한貌樣이다。瞬時間에 그의몸은漸漸커지기 始作하야壯大한巨人이되여버리고、그의주먹은、말할수업시 커보엿다。나는 적뻿소리못하고、그의뒤를따럿다

어디인지는 記憶할수업스나 周圍에人跡이 고요한곳으로 발길이옴겨지게되엿다。突然히 네온사인이 華麗한곳이 눈아페떠인다。저기 모든女子들이 내선물을바드라고 누어잇다는것이다。

마침 그곳에 다다르니 집도아무것도 업는벌판에 볼근등푸르등만이 燦爛하고 둘우에는數만흔 젊은女子들이 둥굴고둥잇가티。다。마치 數어시열린 호박과도 가티。

때맛침 더운여름이라 입은것이야말로 매울 簡略하고 설혀무루의으도절이 난데업는 訪問客에 놀래지고잇섯다。

어쨋든 그들을바라보니 苦痛에 못이겨 찌푸렷든얼골은 어듸로 다려나고 가장明朗한얼골에 微笑조차띄이고 입은洋服도 말숙하기짝이업다。女子들도 그사나히가 마음에드는모양이다。서로 눈웃음하고 야단들이다。그러나 여전히누어서 精神을 자아내일 뿐이다。싱긋웃는그는 徐徐히、그들아페 가까히 다가슨다。그다음瞬間 그는 번개와도 가티 그數만흔 女子를 모조리 征服식히고 말엇다。나는 눈이 부시고 精神이 混亂해저서 그만 精神을 일코 업흐러지고 말엇든것이다。얼마나한 時間이 經過되엿든지、아우성치는 女子들의 울음소리에 精神을 차렷든 것이다。눈을떠보니 그사나히의 痕跡은 차자볼바이업고 나를에워싼 女子의 떼를發見할수잇섯슬뿐이엿다。눈이 둥굴해、바라보니 只今까지의 態態는 어디로사라졋는지、산산히 푸러허터진、머리털과 亂雜하기 짝이업는옷매시가 나를 괴롭게하엿슴

때를이엿다。그男子로부터 운病毒을 바더다는것이다。견딜수업스니 어떠케 좀해달라는哀願들이다。가진아양으로 나를 롱락하려든 自己들로서 逢變을當하고나니 悲痛하는 너머나슬한 心境의變化에 나도不快感을禁할수업섯고 도로혀 마음으로는 그래싸다는感情도업지안헛스나 醫師로서의나는 治療해주기로作定하엿다。주머니를뒤저거리니、조곰한병과、注射器가들엇다。그병에무어이드럿는가하고、를그렁이드러다보니、異常하기도하다。가느다란꼬리가달린、벌레가、그야말로無數히、헤엄치고잇는것이다。하하、여기、어떠한細菌이、가득차잇고나생각햇다。

그러면、이것을、各其注射하자 數만흔患者를、一列橫隊로、나라니세워노코、消毒조차할사이엄시 모조리 도라가며、注射해버렷다 注射를 맛고난그들은、또다시元氣를 回復하엿는지 喜喜樂樂하며 어디로인지 사라저버렷다。따라서 네온사인도 아무것도업는길갈한들이엿고 그가운데 홀로히 서잇는나이엿다。只今의治療方法이 걱정이되엿든것이다。나의꿈이약이는 이로끗을마치려니와 新聞不夢譚으로하자

나는 性病患者를 자조 每日가티接觸하고잇다。그들은 所謂不良青年도아닌거지만흔 그中에는 一時의잘못으로 奔한女子들만이 니를두어지가기는고사하고 이러한선물까지받는사람이 잇는模樣이다。가엽시도 呼訴하는女子에의 란이잇다이러한사람이 女子에의 復讐策으로서 自己의 病菌을 다른사람에게 부리퍼치는것이다 그리고 治療法으로서 다른病菌을注射한것은 이러한因緣이잇다 日前 畏友P君을 맛낫는데 才談삼아 이러한말을 한적이잇섯다。『이사람아 어떤病에 걸닌사람에게다른 病菌을 注射하야 그病을 退治식힐수잇다 그病魔를 鬪爭식힘으로써 요것도 한個의 辨證法(?)이란말이야』

現段階의文學과 우리의『포ー즈』에對한省察 ①

李 源 朝

文學이라는것을 行動이라는것과 全然 分離해서 생각한것은 적어도 中世封建時代에서 부터 始作한것이라고 볼수잇다。이러한 觀念이 생기게된 그直接原因은 勿論 그때의

…社… 會的體制와 따라서 그 體制를 永久히 保障하려는 政治的 所使이지마는 이러한 觀念은오늘날 우리들의 世代에잇서서도 事實上으로 殘存하는것갓다。다만 거긔에 얼마人간의 變遷이나 進步가잇다고한다면 封建時代에잇서서는 行動이라는것이極히 狹義的으로 解釋되여서 그것은 곳 肉體的勞動이라는것을 意味하면서 文學은 적어도 知的活動으로서의 截然한 優位性을가지는것이라고 思惟하든것이지금에와서는 行動이라는 概念의 限界가 漸漸 넓어지는 同時에 實質上으로는 그러치 아니하드래도 形式上 으로는 文學과 行動이라는것이 決코 位次的 高下의 等級을가진것이라고생각지는 안는것이다。그러나 依然히 文學과

…行… 動이라는것을 分離해서 생각는것은 비록 位次的으로 高下의 等級은 가지지안헛다고하드래도 그것들은 한개의 專門的領域이라는 各自의 限界를가진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專門的領域을 서로 侵犯하는것은 不當한일이아니면 不適當한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 現代의 通常的觀念인것갓다。

그러면 이러한境遇에 行動이라고하는것은 무엇을 指稱하느냐? 하면 이것은 肉體的勞動을意味하는것이아니고 가장 端的으로 말하면 政治的實踐을 말하는것이다。

勿論 政治와 文學은 別個의 物件이다。그러나 常識的으로생각해보아서 이別個인 文學과政治가 새삼스러히 別個의것이냐아니냐하고 問題가되엿다면 그것은

…常… 識을 지나처서 그問題自身이 問題를 가지고 잇다고보아야할것이며 또한 이러한 問題가 全部誤謬에 채여다고하드래도 이러한 問題가 시끄러우리만치 問題가되엿다는것은 또한 그問題가 생기게된 時代의 特殊한 性格이잇다는것을 是認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이러한條件을 念頭에두고서 政治와 文學이라는 問題의 擡頭한 時期와 또는 그理論을 提唱한 主人公을 생각해본다면 한개의興味잇는 事實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니 萬若 市民社會로 하여금 오늘날과가튼 모든 矛盾을 露出하지안헛든들 이러한 問題는派生될 餘地가 업섯슬 것이다 다시 이것을 더明確하게 말하기위해서 비록 非科學的이나마 한개의

…假… 說을 빌여 말한다면 市民社會의 經濟的 政治的機構가 歷史의 永遠한 恩寵을바더서그 自體內에 프로레타리아라는 矛盾의 胎兒가 생기지안헛거나 또는 생겻다고하드래도 이 胎兒의 順調로운 發育이나 完全한 生長을 시킬만한 能力이잇섯다면 이러한 問題가 생기지는안헛스리라고 할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 이問題가 생기게된時代의 特殊한 性格이라는것은 市民社會의『알게마이네‧크리제』이며 이問題의 主人公은 곳『프로레타리아-트』이나 다가튼 文化形態中에서도 文學이 다른文化形態, 말하자면 哲學이나 經濟學이나 自然科學이나 宗教가튼것에 對한 相互關係보담도 政治에對한

…相… 互關係가 더만히 前面的으로 論議되엿스며 또한 그論議는 항상 그接觸面이 다른 文化形態에서 보담도 더만히 灼熱한 白火를 이르킨것은 여긔에는 이러한 原因이잇다。

元來에 이問題의 派生된 源泉이 市民社會의『알게마이네‧크리제』에 잇는만큼 文學的危機도 結局은 文學그自身으로는 解決하지못하고 政治的解決을 기다리지안허서는 안되는것과 또는 文學的危機를 이러한意味로서의 政治的으로 解決하다면 이것은 文學이라는 한部門에만 局限된것이아니라 이社會의 基本的『올가니즘』을 解體하지아니하면 안되다는 가장 重大한歷史的問題가되는때문이엿다。

批評基準의客觀性

그것의現代的動搖에對하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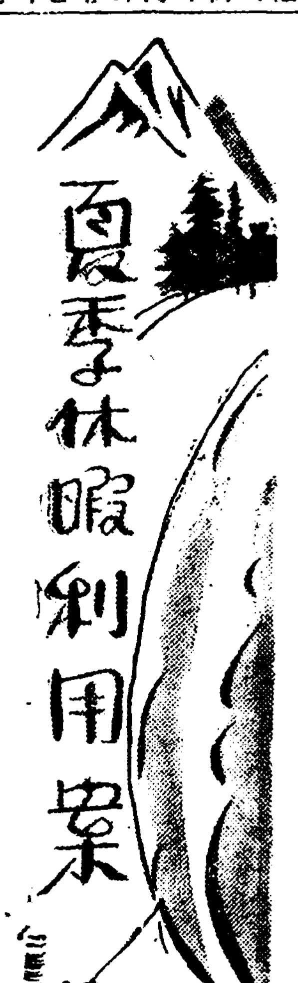
李 秉 珏

批評의論理는 文學의論理에 依하야 規定되는것이다 文學은모든事物의論理關係와 歷史關係를 概念的으로가 아니고 形象的으로 表現한다。그럼으로 文學은 概念的敘述과가티 理知에呼訴하는것이 아니라 感情과情緒에呼訴하는것이다 그러나 科學的인 概念이 理知를 通하야 感情에 作用하는것과가티 文學의形象性은 感情을 通하야 理知에 作用하는것이다。

여기에 잇서서 文學과科學―이 兩者의 差異는 다만 程度의差異에 不過한것이다 文學과科學은 다가티 存在에依하야 決定되는것이며 따라서 서로 區別을 가진 어떠한 特殊的인內容을 가진것은 아니다 科學과文學의 差異를 科學은 抽象的이요 文學은 具體的이며 科學은 概念―卽論理의 法則에依한思惟요、文學은―形象에 依한思惟라고 定式化하는것은 이兩者를 圖式的으로 分離한것이요 따라서 本質的인條件을 가지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科學과 文學의內容은 社會生活 或은 人間의社會的實踐의 客體로서의 自然의內容에依하야 만드러지는것이다 이것은 그形式에 依하야 서로다른것이다 文學과 科學의 形式의相違는 科學과 政治와의 形式의相違와가티 한개의 이데오로기ー와다른 한개의 이데오로기ー와의 相違와가티 이모든 것의形式에 固有한 相異되는 社會的內容의 結果가아니요 生活의 一面이文學―藝術속에 다른一面은 政治속에 或은 科學속에 完全히 開示되여잇는것과가튼 生活의多樣性과 複雜性의結果인것이다 그러함으로 機械的唯物論者의‧任意의形式이 그內容에 依하야 決定되다는것만알고 文學의特殊한內容과 科學의 特殊한內容만을 設定하야 그相違한形式의 事實에立脚한것은 警戒하여야할誤謬를가지고잇다 科學或은文學의힘을 빌여서 現實을開示하는必要는 社會的關係의多樣性 現實의側面의多樣性에依하야 決定되는것이다 文學의 힘을빌여서 現實을開示한다든지 認識한다든지 그것에作用한다든지하는 人間의能力은 산(生)의內部에 잇서서의組織된 것이다。그러나 思索하는 能力과가티 感受하는能力도 산(生)을가 組織된 物質속에뿌리박고 잇는 까닭에 感情과는 分離할수업는 統一思想體다 全部가 그러타고 할수는업스나 科學은 特히思索하는人間의 能力을表現하는것이며、文學은特히 感受하는人間의能力을 表現하는것이다。

이러한 決定은 科學은人間의 思想 感情을 表現하며、開示하는것이요、文學은人間의 感情만을 表現한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아니다。科學은모든 世界를、思想과感情을包含한것의 全人間을 特히概念의힘을빌여서 認識하는데對하야 文學은 特히 形象의힘을 빌여서 世界와人間과 그의思想感情을認識하는것임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러나 文學이 感情과情緒에 作用된다는것으로서 文學에잇서서 形成의完全性、美的意義라는 問題가 생기게된다 美的快感을 주지못하는것은 藝術로서의 條件을具備하지못한것이며 美的快感은 形式의完全性에基因함이만흔까닭으로―그러하야 心理的인事實과 作用、意識的 生活行爲、思想의모든 對象을 항상感情驗을 通하야 直觀的形象속에表現하지 안흐면안되는 文學에잇서서는 形式은 至極히 重要한契機가되는것이다 過去의이데오로기ー批評의 一面性은 形式의構成、樣式의 多樣性에對하야 相當한鈍感이엿다는데 잇서서正當한基準의 客觀性을 捕捉하지못하얏든것이다



家事에助力하며 女子의工程을

進明女高校教頭 李 世 楨

글세요 試驗때가 되여서 方今 探點하다가 나온때문에 무엇이라고 具體的으로 살을 말슴은 別로 생각나지안습니다。그다만 年例대로 우리學校에서 夏期放學이되면 生徒들에게 부탁하는것을 몃가지 말슴하겟습니다。

본래우리學校는 地方學生들보담도 서울이 더만혓습니다、그러나 요사이와서는 地方學生數도 相當히 느럿슴으로 서울잇는學生들보담도 地方學生들에게 特히 이러한말을 하는테요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自己鄉土에對한 調查研究를 하라는것입니다。요사이는 鄉土教育이라는우리들 教育者사이에 話題꺼리가되여잇습니다마는 대체로學校에서 地理나 歷史가튼것을배웟스니까 그知識을 土臺로하여서自己故鄉은 歷史的으로 엇더한事實이 잇섯다든지 또는地理的으로 엇더한 位置에 잇스며 또는 自己 故鄉에서 發展하는것은 엇더한 方面이고 零落하는것은 엇더한 方面인가 하는것을 調查도 하고 研究도 하게합니다。이러케해서 地方아이들이 서울와 工夫를한다고 空然히 都市의 華奢한 一面만배우고 淳朴한 自己故鄉에對해서 知識이 薄弱하거나 愛鄉心이적은것을 防止하려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家事에對해서 만히 助力을 하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티 女子中等教育에 直接從事하는 當事者로서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事實 지금 우리一般家庭을 보면 딸은 學校에 너호려고 가진애를 다쓰지마는 그反面에 며누리를 求하는것도 반드시 中等學校卒業生을 求하느냐하면 반드시 그러타고하기에는 어려울만치 한개의 畸形的狀態를 보히고잇지아니한가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도 될수잇는대로 이러한 矛盾을 除去하려고 애를쓰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女子中等學校라는것은 그設備上으로나 또는 모든것으로보아서 女工에對해서 多少 等閑합니다 勿論 우리學校에서도 家事나、裁縫이나하는 女工的인 課程이 잇기는합니다마는 가령 實習가튼것을할려면 不備한點이나 不合한點이 업지아니합니다。그러니까 家政에는 學校科程보담도 家事에 助力을 하여서 한가지로는 父母님들의 助役도되고 또한가지로 女子로서 배워야할 學問이라든지 體驗을 實地로 닥는것이조흘줄압니다。그러나 家事라고해서 반드시 이러한것에만 局限할것이아니라 農村에도라가서는 논에 풀도 뽑고 밧이라도 맨다든지하는것도 매우 조흘일일줄로압니다。

그리고 保健上으로도 注意를 식히기는합니다마는 女學生은男學生과 달러서 이方面에 積極的으로 注力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登山이나 水泳가튼 外部에서 만히活動하게되는것은 지금가태서는 實行하기어렵습니다、다만 消極的이나마 집안에서라도 夏期保健上留意는하도록합니다。그저 대략이러한것이고 별로 積極的으로利用方法은 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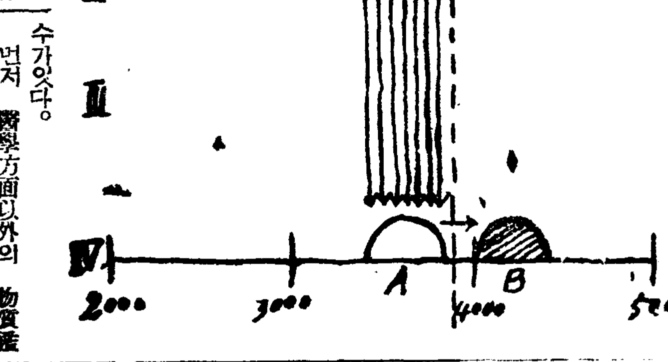
紫外線과物質鑑定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②

文 仁 柱

그러고 前述한바와가티 紫外線을 物質에 쪼이면 螢光을發하나 그螢光의波長은 刺戟光보다도 긴波長을가진다。이螢光의 波長이 紫外線範圍內 卽 不可視光線의波長이될것이나 螢光의波長이 紫外線의範圍外 卽紫外線보다 長波長일때에는 그螢光은 光視光線으로 變하야 吾人의肉眼으로 볼수잇게되는것이다。그럼으로 이紫外線의 螢光作用을 利用하야 物質을 鑑定하라면 그螢光의波長이 可視光線의範圍內에잇도록 設計하여될것이다。

다음에 前述한 紫外線의 物質鑑定應用에對한 原理를 圖解하면 다음과갓다。



1、光源으로부터 發生하는 紫外線及可視光線。
2、濾光板。이곳에서 可視光線과 極히短波長인 紫外線을 吸收하고 比較的 長波長의部分만 通過한다。
3、濾光板을 透過한 紫外線이다。이것이 物質에對하야 刺戟光이되다。
4、被檢物質의 表面及波長의度數。
A、刺戟光 B、可視光線範圍內의螢光。

圖解한것과가티 刺戟光의 波長은 不可視光線內에잇스나 螢光은 그波長이 長波長으로變하야 可視光線範圍內에 잇게됨으로 吾人의 肉眼으로 그螢光을 觀察할수가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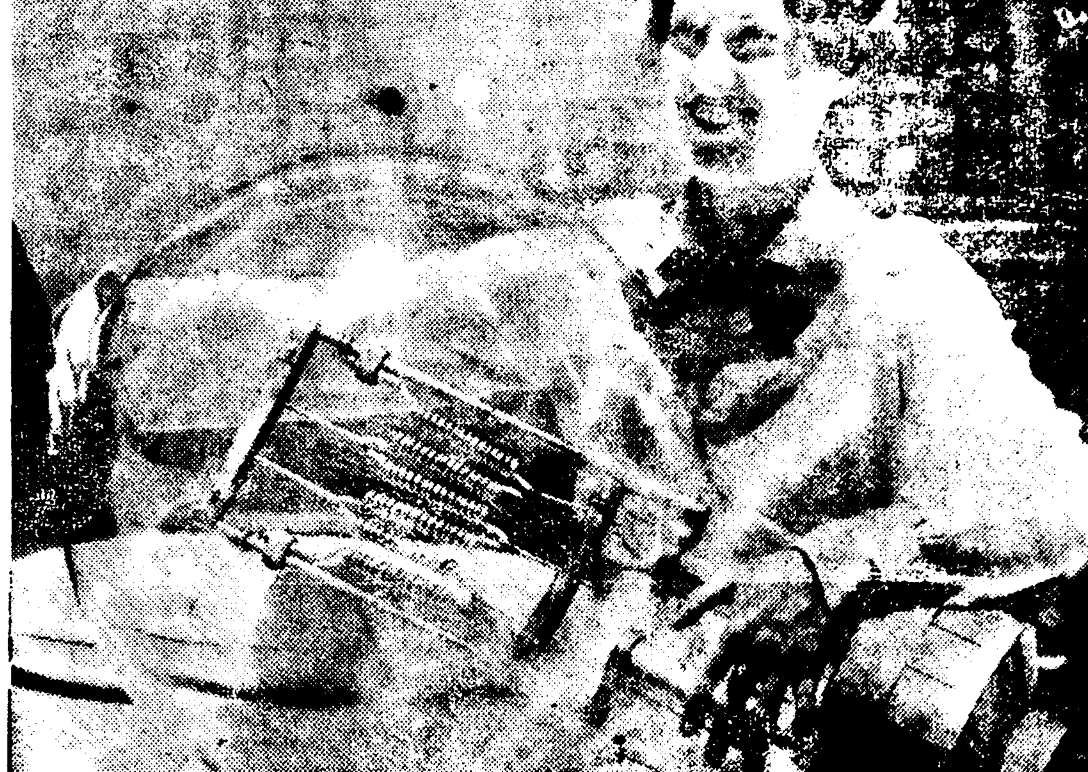
이러한原理를 利用한 紫外線物質鑑定器의 構造를 잠간 說明하기로하자。

紫外線의 光源인 發光管이잇고 그下部에 濾光板을 設置하야 發光管으로부터 發生되는 紫外線及 可視光線이 이濾光板을 通過할때에 一定한 比較的 長波長의 紫外線만 透過되도록하얏스며 最下部에 被檢物을두고 이것이 螢光을 發하도록되어잇다。그리고 또 外部의 可視光線을 막기爲하야 黑幕으로 둘러싸여잇다。第一簡單하게하라면 普通一般으로 使用되고잇는 人工太陽燈에다 濾光板을 붓치고 暗室에서 觀察하면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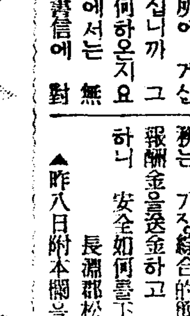
그러면 吾人은 紫外線으로 엇더한 物質을 鑑定할수잇겟는가。

可視光線 卽 日光光線미테서는 엇더한物質의 眞僞를 鑑別할수업슬때에 前述한條件下의紫外線으로 그差別을 明白하게할수가잇다。

먼저 醫學方面以外의 物質鑑別의例를 들어보랴。有價證券의 表面을 改竄하얏슬때에 肉眼으로는 그眞否를 알수업슬때에이것을 紫外線下에두면 抹消된部分이 螢光으로 出現하게됨으로 卽時에 그眞否를 알게 될것이다 또 作者가 不明한 古書畫가 잇다고 하자 이것을 紫外線에依하면 삭아업서진 署名을能히 判斷할수도잇게되는다。그밖게 眞珠의鑑別에도 紫外線을應用한다。最近 人造眞珠가 極히 功妙하게 製作되어 肉眼으로는 그眞僞를 알기가困難할때에 利用한다。紫外線에依하면 天然或은養殖眞珠는 純白色의 아름다운 螢光을 發生하나 그와反對로 아모런 螢光도 나타내지안흘때에는 그것이 人造眞珠임에틀림업는것이다。



◆……世界最大의眞珠……◆



▲六月二日附社交室末尾求婚生에게 相當한處女잇스니 左記住所로寫眞을傳해보오
水原郡雨汀面 金炳周

▲家庭教師를 願하나이다曾校二年生을 責任지고가르처드리겟나이다 寢食만願하나이다主로京城市內外를願함有意하신분은左記로通知하심을바라나이다
大日本最新中學講義錄(全部分冊)잇사오니 他書籍과交換하실분은 交換冊名通知하시옵소서買讀코저하시는분은 價通知바람
平北龍川郡北中面雙城洞四二〇 張根厚 白

▲圖們의 志水工務所에 계신 金帝錫兄이여 안녕하십니까 그곳에 近間景氣는 如何하온지요 이곳 時來里 兄님宅에서는 無事히게십니다 前番 書信에 對한 感謝를 兄님대신 올리나이다

▲圖們계신 淸書諸氏여 좀알려주시요
黃海海州郡 金炳龍

▲貞慶이 在南이는健在하오、나도너를 보고십다。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本人은 家庭教師를 自願하나이다 月給은 每月十圓以上希望(女子에限함)本人自宅에서 負擔하겟습니다 有意하신분은 本欄에나 左記住所로 履歷書添付通知하시요
全北茁浦港岸通 安永洙

▲本人은 本社交室을 問議할것은 市內靑果講習所가 잇습니까 또市內自動車學校中 어느學校가 內容이 完全합니까 本人은두가지로말하고저하오니 速히下敎하야주심을 바라나이다
慶北盈德郡寧海面槐市洞 孤海鵬

▲湖岩先生은 일즉부터 面識이 無함은 勿論이고 아즉도 姓名의何氏임도 聞悉치못하엿사오나 그러나同氏의 投稿가 貴紙上에 稀少한것만큼 貴紙愛讀의 趣味가 그만큼減少되엿기로 玆에 陳情하오니 同氏의 古蹟巡禮에 對한것과如한것을또한번 愛讀할수잇슬까요?
慶州 一讀者

▲未安莫甚이외다마는 讀者諸氏中 左記陰曆이陽曆으로엇지되온지 直接으로나 社交欄을通하야 알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記
明治五年陰十一月十三日
同三十七年陰十二月十八日
同四十年陰六月四日
大正十二年陰八月十四日
以上月建과日辰을 함께알여주심을 비옵니다
大邱德山町二九〇ノ一三 鄭德琪

▲舊人、姜任祚氏여! 氏를맛난 十餘年前에 東京에서 서로作別後그동안 人便으로 或은 傳便으로氏의 慶州玉山學校에 在職하신다는것과 其後에 結婚하여서 大邱에 居住하신다는 消息은 聞知하엿스나 其住所와 番地를 未詳하와 玆以廣求하오니 其本人으로부터 通知하여주시면 多幸이오나 만일 其住所를 知하시는 諸彥이게시거든 社交室을通하야주시면 多謝
東京麴町區上六番町 SK生

▲本籍을 咸北富寧郡觀海面梨津洞에두고 滿洲圖們市弘津商店에 勤務하든 金祿松君이여 汪淸으로 간다는 말만드럿슬뿐으로 住所는 모르는故로 通信이 끈허저서 答答한마음을 禁치못하겟소! 君이여 이社交欄을通하야 住所를 알려주게! 或다른분이라도 아시거든 左記住所로 通知하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京城府觀水町一四五 洪文杓

▲生이 大阪市에서詳細通信社의通信社員이되고저하올는데 事務는 가장綜合的簡單하고 每月報酬金을送金하고 收入多大하다하니 安全如何를下敎하시요
長淵郡松川 一讀者

▲昨八日附本欄을通하야 就職難을求하시는『新興讀者李生』氏에게奇함하옵니다 本人이經營하는社에서 方今適當한社員一名을採用코저하오니 至急히來談하시오
城北町六二ノ一八 金尙龍

▲探人! 本籍을 釜山에 두고 四年前에 扶餘郡규암리 林永文方에 下宿을하고 트락크運轉手로잇든 朴用國氏가 只今은 大田、釜山、京城方面에서 勤務하고잇다는 風說이 잇스니 諸者諸賢께서 或朴氏의 居處를 아시는분이 게시거든 左記住所로 通知해주시면 相當한 謝禮를 表해드리겟나이다
忠南靑陽郡美堂市 李玉順

▲小生은洋靴製造業者인대 朝鮮文이나 日本文으로된 新樂專門雜誌를아시는분게시면는 本欄을通하야 其誌名과發行所를下敎하여주시면는 感謝하겟나이다
行營 許生奕

▲數年間한學窓에서 한寄宿舍에서 한께갓치배우며 갓치寢食을함께하야 卒業이라는惜命을맞고 惜別한孫泰寬、金二顯、張眞聰의 세同伴여! 서울太平通二丁目大漢門橫人의某學院在學時代는 악가워라인제는 四個星霜이라는기ー한歲月를마지하는 그사이에서 同伴들의安否를 알길이업서 甚히답답하외다 더욱히쓰라린苦學을三年間맛보든 張氏여 나의 無情하고 無情함을 容恕하시오。孫金二友여 그립든消息을듯고십호니 該社交欄으로알으켜주시면 반갑것습니다 부대밋습니다
咸南北靑新甫七八〇 李利奕

▲溝繡에使用하는 用紙는무엇이適當합니까 不變色을要求하오니販賣住所와 紙名을 下敎하야 주시옵소서
(平北楊市文今仲)

▲作家、評論家여러분先輩들이 시여! 여러분中或後進을爲하여幾許의時間을割愛하여주실만한雅量이업스십니까? 隨筆、小品、散文、詩歌、小說等原稿紙一枚或는長、中、短篇小說、詩歌等各一片에는幾何式이라는報酬로서指導批評하여주시는일을마타보아주시되發表機關과도緊密한連絡을取하시와그다지遜色업는作品은考選하서서紙上에發表하여주시는것까지周旋하여주신다면後進을指導養成乃至前途打開의길을여러주심이될뿐만아니라文化的으로도크게有意義한일이아닐가하노니有意하신분은紙上에規定을發表하여주시기바라나이다
六、二二 於金剛寺 一松

▲二十八歲의 向上靑年 身健義止 在留日本十年以上、修學이相當하고 教養이 豊富하며 氣質이 沈着한 可憐한獨身 有望한靑年이다。오래동안 日本內地에 잇는結果 自然 朝鮮語가不充分하기 京城方面에가서 無給으로라도 雇傭사리라도 하면서 朝鮮語를 배우려한다 有意하신분은 左記로 問議하여 주시오 本人의希望은 될수잇스면 英語를 教授하여주실 家庭方面이면 더욱 조타고합니다。
東京市牛込區喜久井町二 明月館 KIN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 잇다。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鄉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 (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パパイン酵素應用・藥用クレーム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여름의 自信 美의 增績

여름은어떠한분이라도美에對한自信을일키쉽습니다 그러치만女子容態와 그特異한美는 여름에第一發揮된다고한다『아몬파파야』는獨特한秘法에依하야 美顏美肌의精파파인酵素를 主劑로 專賣特許의 製法에依하야 精製되야잇슴으로써반드시貴女의美를누구에게든지자랑할수가잇습니다…… 여름의美를아몬파파야에매끼시라……

特効
죽은깨、기미
여드름防止
부름、벗껴
름化粧下에

定價 一號 一圓三十錢 二號 一圓八十錢
全國데파ー트、有名藥店化粧品店에잇슴

連載野談

布袋記 (六一)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북을찟는그칼 (六)

원래 동명성왕께서 고구려를 세우신뒤에 매양 깨름직이 생각하시는것이 두가지시엿다。

하나는 북에잇는 부여요또하나는 남에잇는 락랑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부여와락랑을 합하지못하면 큰 고구려국을 세울수업는 까닭이엿다。

그리하야 먼저 동명성왕께서 그두나라를 합치려는 뜻을 두섯고 다음에 류리왕께서도 역시 동명성왕의 뜻을이어 또한 두나라를 합치려는 뜻을 두섯다。

그러나 고구려는 새로 세운 나라이라 범백이 초창함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할힘이 아직도 완전히 서지못하얏는뎃으로 매양 두나라를 합치려는 만흔뜻 두엇스나 어내행치못하얏다。

특히 락랑국에는 어느나라의 강한 군사라할지라도 처음부터 침범할 뜻을 두지못하얏다。

설혹 망령되히 침범을할지라도 반드시 패하고 돌아오지아니한 군사가업섯다。

그것은 락랑의 군사가 특히 용맹한탓이 아니라 락랑에는 나라를 보호하는 두가지 보물이 잇는 까닭이엿다。

그 보물이라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하나는 북。또하나는 라팔이엇다。

이상한 북!

이상한 라팔!

이 북과, 이라팔은 나라에 병란(兵亂)이나, 병변(兵變)이 잇슬때는 반드시 제절로소리가 나는 북。제절로 소리가 나는 라팔이엿다。

그럼으로 그북과 그라팔이 소리를 낼때에는

『허춤사!어느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치러오는군!』

하고 락랑왕은 그뜻을 나라사람에게 알리고 미리 미리 그것을 방비하기에 힘을 쓰게된다。

이와가티 락랑국은 란리를미리 방비함으로서 속을모르고 덤벼들엇든 딴나라는 열번이면 열번다 도리혀 큰해를 당하고 돌아갈뿐이엇다。

그럼으로 락랑국 사람들은밤이나 나지나 그 북과 라팔이 울지나아니하는가 늘이경계하기를 마지아니하얏다。

그리고 그 북과 라팔을 국무고(國武庫)라는 고간에 너허두고 나라의 큰 보물로써 간수하얏다。

즉 그 국무고는 국보(國寶)곳간인 그북과라팔을 위해두는 곳간에다 진것은 물론。항상 크고도 이상야릇한 잠을쇠로 써 잠거두고그열쇠는 락랑왕이 친히 몸에지니고잇섯다。

그럼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락랑을 빼스려할진대 먼저 그북과 라팔을 빼든지 업새든지 양단간에 조처해야 할것이니 그북과 라팔을 조처하는때가 즉 락랑전국을빼는때인 까닭이다。

그러니 락랑왕은 물론。락랑의 백성까지도 그북과 라팔에 대하야

『우리나라 국무고안에 들어잇는 그북과 라팔은 우리나라와 우리백성을 보호하는 신령(神靈)님! 우리들의 오복(五福)을 직히는 거룩한 신령님!』

하면서 그북과 라팔을 자기네의 목숨과 재물과 행복으로생각하고 위하얏다。

그래서 락랑왕이 조석으로그 국무고를 한번식 돌아보는것은 물론 용맹하고 명민한 군사를 번갈너드려 직히는중 백성들도 밤낫을 가리지아니하고 그국무고가잇는대궐담박게서 돌여가면서 보살피엿다。

이와가티 락랑국 사람들은 그북과 라팔을 신을 각근히하고 그북과 라팔을 보호하니 누가 감히 그것을 뜻 둘수잇스리요

그럼으로 대무신왕께서 락랑을 긔여코 합치려는 생각은 간절하시나 그 이상한 북과 라팔을 조처할길이 업슴으로 거이 침식을 달게 바드시지를 못하얏다。

이때 대무신왕의 왕자께서도 그부왕의 근심하시는 뜻을 역시 잘알므로 항상 락랑국의 그 이상한 북과 라팔을 마음에 기피 새여두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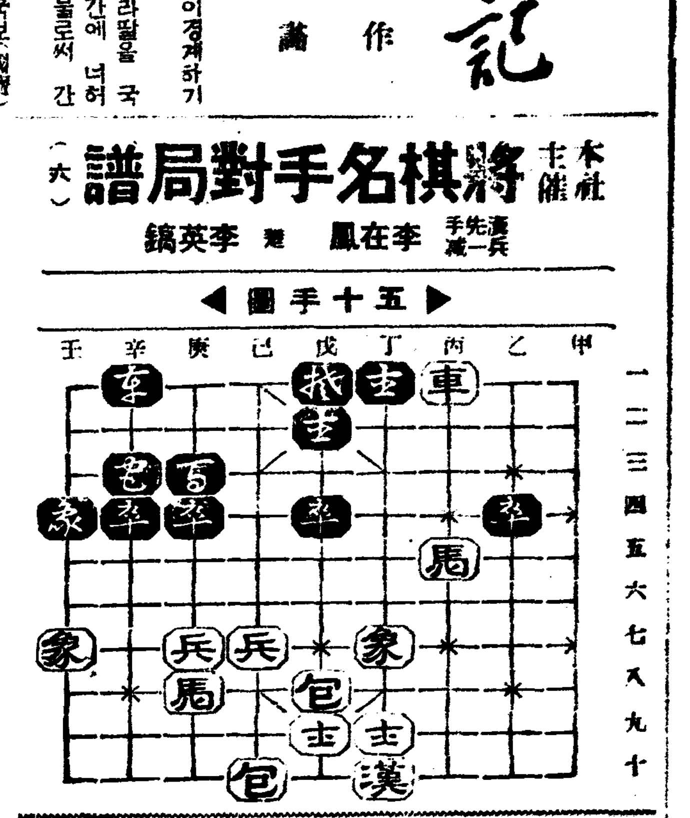
그리다가 하루는 거연히 락랑을 향하고 뜻기픈 발길을 떼노케되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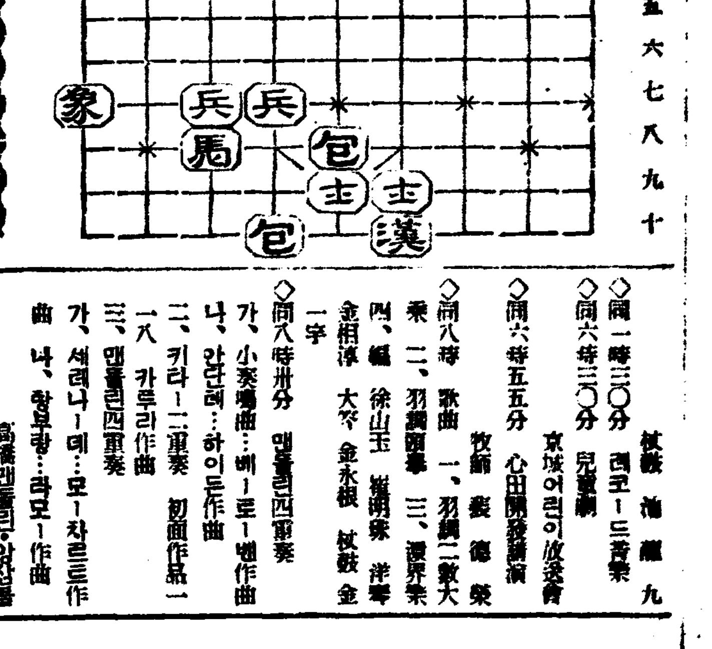
漢先一兵 手先 李在鳳 對 李英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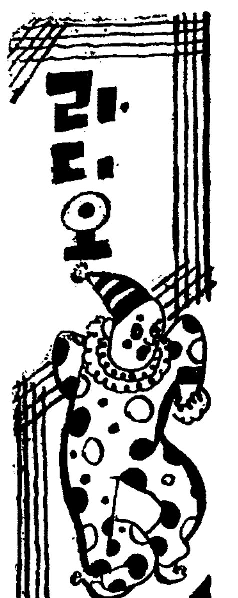
◀第五十手圖▶



◀第六十手圖▶

丙三兵—戊四打卒
辛三卒—戊三
戊四兵—庚三打馬
辛一車—辛三
庚三兵—戊三打士
戊一車—戊二打馬
丁五兵—乙四打卒 呼將
戊二車—戊一
丙二車—丁二打士 呼將
(續)





十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唱歌 加明普通學校生徒 伴奏 咸福順
◇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 『바듸불이야기』 趙炳俊
◇同八時 趣味講演 『避暑地巡禮』(一)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詩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解說時調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八時五〇分 배다라기 一、배다라기外一、二、장기타령 三、개타령 四、가진방아타령 金紅桃 金泰運
◇同九時三〇分 名曲鑑賞
一、레너獨唱(가)菩提樹 (나)그네는愁心……슈레자크獨唱-슈-베르트作曲
二、레너獨唱(아)사랑코노래 (나)사시못으는사랑…추젤메루-고獨唱-지만作曲
三、소프라노獨唱…마리아젤리-레獨唱 歌劇『椿姬』中『지난날잘잇거라』……베르듸作曲
(레코-드演奏)作曲朝鮮音樂協會 李升學

第一放送

◇午後六時(釜)童話劇 釜山고도모協會
◇同七時三〇分(小)講演 海崎三郞
◇同八時 二曲과三曲合奏 福谷逸秀外
◇同八時三〇分(東)獨唱 內田榮一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春日亭淸鶴

十一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大) 管絃樂 -桃谷演奏所에서中繼- 音의姿態:말셀•드라노아作曲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指揮 倉重舜輔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녀름과마음의緊張 尹聖相
◇同六時三〇分 童話 李完鎬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中央日報 李相燕
◇同八時 趣味講演 『避暑地巡禮』(二)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오랑캐꽃 二、눈물의鐘路 三、講談의哀歌 四、映山紅 五、波濤를벼개삼고 姜石燕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긴난봉가 三、병신난봉가 四、사발가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九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友情" 一場
【配役】 유아나…金英珠 유안…李雄 요르케…崔鳳則 老僕…申泰善 劇藝術硏究會
指揮 柳致眞 效果 李雲谷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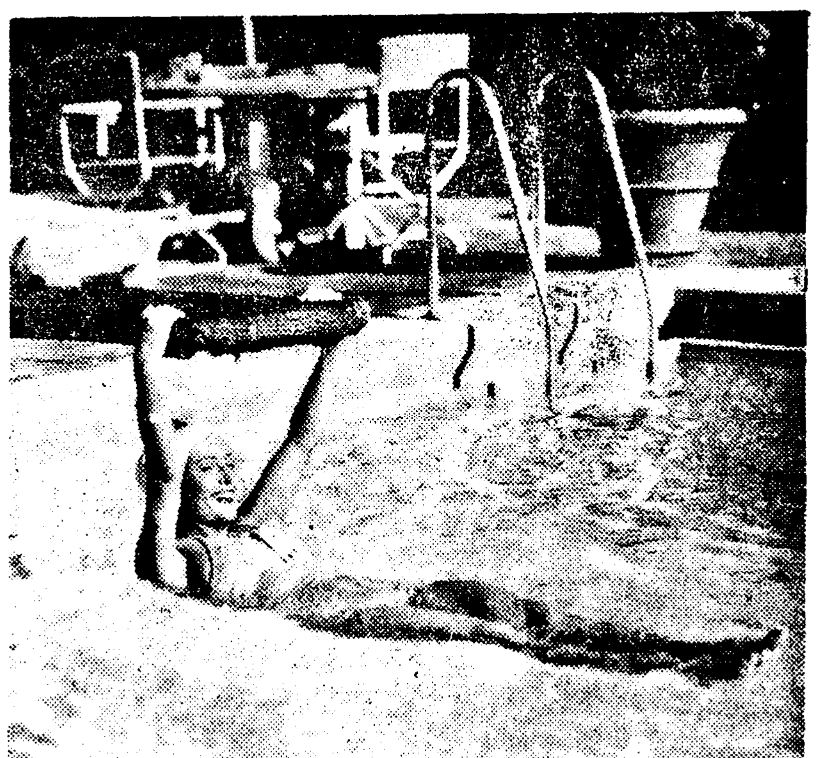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六時(東) 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硏究會
◇同六時三〇分(富) 座談會 富山營林署長前島象晴外
◇同七時三〇分(東) 舞臺劇 中村扇雀外

十二日 (日曜)

◇同八時三五分(東) 自作朗讀 里見弴
◇同九時 時事解說
◇午後〇時五〇分 吹打外 一、吹打 二、念佛 三、굿거리 三日吹樂團
◇同一時一〇分 樂파리獨奏 一、山打鈴 二、江原道아리랑 三、청성가 四、방아타령 五、楊山道 六、찌끼리춤 柳炳戊
◇同一時三〇分 레코-드音樂 伽倻琴 池龍九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牧師 裵德榮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二數大葉 三、羽界樂 四、編 徐山玉 崔明欽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伽倻琴 金一宰
◇同八時卅分 맨돌린四重奏 一、가、小夜曲…베-로-벨作曲 나、안단테…하이든作曲 二、키라-二重奏 初面作品一一八 카루리作曲 三、맨돌린四重奏 가、세레나-데…모-차르트作曲 나、할루랑…라모-作曲 高橋맨돌린•앙상블 指揮 天岡重雄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江上歌" 二、唱劇調 "春香歌中麝石뫼넘어가는데" 鼓手 丁元俊 丁貞烈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令 四、山念佛 崔貞子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午後〇時五〇分(滿) 滿洲雅樂 新京서
◇同 一時一〇分(東) 謠曲 梅若萬三郞外
◇同 六時〇〇分(東) 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硏究會
◇同 七時三〇分(臺北) 講演 早坂一郞
◇同 八時〇〇分(東) 라듸오드라마 東山千榮子外
◇同八時五〇分 詩吟 堀野正風
◇同 九時〇〇分(名) 鵜飼實況—岐阜市長良川河畔에서—



◇스타의消夏法……쫀•크로포드

☆曆☆

七月十一日(土) 舊甲午五月大(廿三日)
甲午•金•晉•閉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新進스타名鑑

▲위니프레드•쇼(米) 加州桑港出生。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에 能하야 紐育나이트•클럽 一九三四年 映畫로 들어왓다。그의 出演映畫는『들에피는 金色의꼿』『百萬弗로맨스』『인•카리엔트』等

▲그라듸스•쇄소트(米) 메트로폴리탄•오페라出演의 메소•소프라노歌手『로지타』『사랑의나포리』에出演 新作은『새로운雛鴿』의 豫定

丁部

▲로바트•릴라(米MGM) 一九一一年 八月五日 네브라스카州필리出生。褐色의 머리에 靑色의눈, 포모나•칼레지에서 醫學을 工夫하든中 音樂에 對한 野心을 가지고 學生劇에出演 헐리우드에 이르러 엑스트라로 스타트로해서 MGM과 契約。 주요한 그의 出演映畫는『하되、안되』『언제나來日』『空中의軍隊』『歡樂의女王』『春季는부로드웨』『艦隊의殺人』『愛의光』『小都會의女子』『秘密의番號』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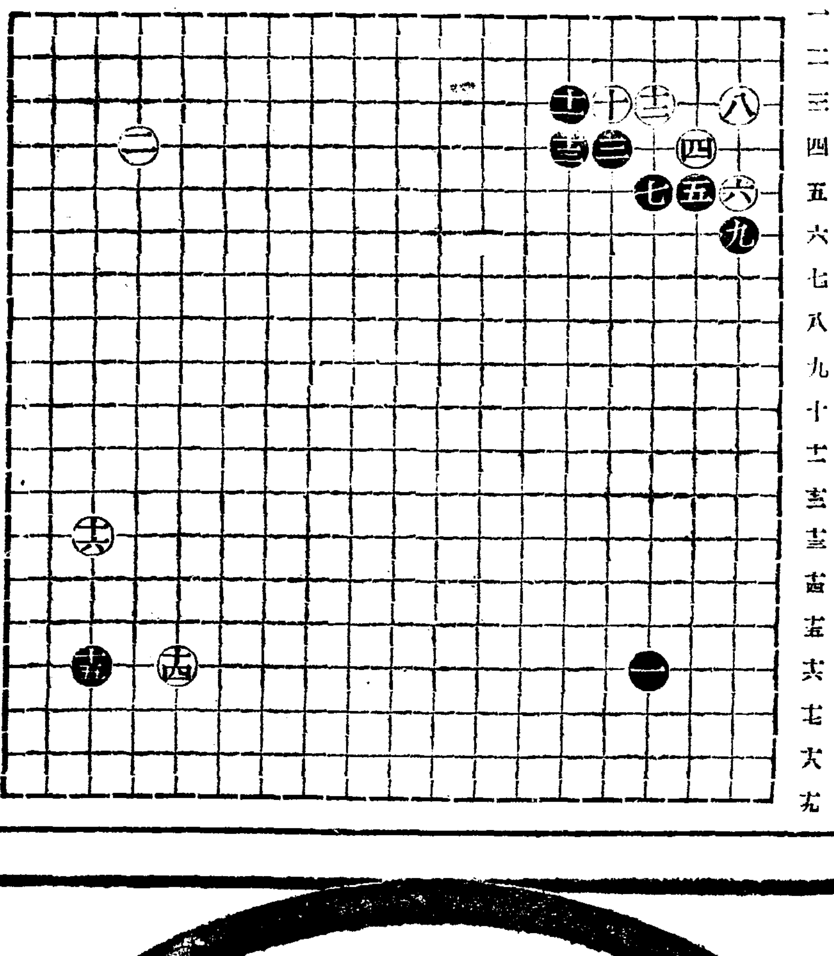
▲베리•데스몰•위싱톤州 스포칸出生 金髮靑眼 紐育스테지로부터 映畫에 드러와서 아돌프•맛조와結婚 그의 主要한出演映畫는『恐怖의甲板』『摩天樓의새시』『黎華船』『流行의상점』『驛馬太平記』『最初의接吻』『마담•듀바리』『독라•모니카』『로이드의牛乳장사』等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一 丁의十六
○二 巳의四
●三 戊의四
○四 丙의四
●五 丙의五
○六 乙의五
●七 丁의五
○八 乙의三
●九 乙의六
○十 戊의三
●十一 己의三
○十二 丁의三
●十三 己의四
○十四 辰의十六
●十五 午의十六
○十六 午의十三



蔡極文氏評日

此回는 超越奇絶한 敵手를 選拔하야 愛棋僉賢의 興味를 돕고저 明細記入할이라 黑丁의十六 白巳의四는 改良新式으로 各一方占據하는 標準이요 白丙의四는 耳角奪回하는 要點이나 黑의 內勢旺盛할 光彩이 發香하니 無可無不可로 看做되다 槪論棋道난 變離으로 附變하니 此等說는 無變有特[illegible] 硏究일가하노라

胃腸病 治療劑

夏期의 食慾 消化 榮養

身心의 變調가나기쉬운盛夏를마저, 胃腸을强健케保全하고食慾을旺盛케, 消化를良好하게, 便通을順調롭게하고, 同時에榮養을充實하게하야 酷暑에지지안할體力을 培養하는것은極히肝要합니다

消化되기쉬운蛋白質、脂肪 多量의삐타민B並ㅁ의基源物質、植物性인슈린樣物質、구리꼬겐、누꾸레인、레치친、칼슘、鐵…等。

胃腸 아페틴錠을右와가튼多種의有効分을綜合含有하고잇슴으로、그作用도極히普遍的이고、成分의偏된從來의胃腸藥과가티 症狀次第로노나使用할必要가업고、여러가지 胃腸症狀에對하야 家庭에서도安易하게服用할수잇는것이特色입니다。

아페틴錠은 强力한細胞賦活作用에依하야胃腸을旺盛하게하고 消化液의分泌을잘하고、消化管의緊張度를놉게하는結果、特히夏期에衰減되기쉬운食慾心을 振起하는外消化를돕고便通을 調整합니다。

榮養 그리고아페틴錠의含有된上記의豐富한有効分은病弱、衰弱體의榮養을도읍고 抗病力을涵養하야酷暑에 征服力을蓄積합니다

夏期에아페틴錠의服用은胃腸의强化에도抗暑의體力涵養에도極히効果的입니다

武田發賣品

アペチン錠

아 페 틴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東京 株式 小西新兵衛商店

藥價至廉
三〇錠(四〇錢) 二〇〇錠(一圓[illegible])
約一月半分 三五〇錠(二圓[illegible])
約三ヶ月分 一〇〇〇錠([illegible])

36—1082 (6)

咀呪할旱魃繼續 萬餘町步廢農

代作을準備中이나그것도느저 咸南地方은大凶難免

【咸興】 미증유한 장기한발(旱魃)은 끗칠줄을 모르고 계속하야 도내에 벌써정보의답(畓)을 폐농시켜고도 오히려매일쨍쨍한 해볏치내려쪼이는 동시아츰저녁에는 이상하게 선선한바람이건듯부러 언제비가 올뜻한예상조차 할수업스며 작물은 한해(旱害)이외에 랭해까지도 면치못하고잇다 함남도 농무과에서는 악일봇우업전부터 각군부에대하야 전과미앙답 얼마여정보에 대작(代作)할 작물의종류대두(大豆)와 교맥(蕎麥)의 현존량(現存量)을 조사하고잇는중이든바 그에대한회보(回報)는 아즉까지전부는 오지못하얏스나 적어도일만정보에 쏠 종묵이 잇슬리도업다고 한다더러 만일현존하엿다고하더라도 대작물중에서는가장유의한 대두(大豆)조차 벌서너무느저서 심우지못하게 되엿다고하며 교맥(蕎麥)은 실긔는안되나 수익이 극히박하며 답을 그냥 묵일수업서 할수업시하는 일에 불과하다고한다 그리고 점점이 네린약소한 비물로 겨우 이앙(移秧)을필한 답도 이앙이후의 맹렬히 계속되는 한발로서 논판이 말러서섬육이 극히 불완전하다고하며이대로 벼때칠만게속되면 역시고사(枯死)의 위협을면치못하리라고하는데 어떠튼 함남도의 금년농사는 도작전작할것업시 수확반감의 대흉을 면치못할것이라고하며 특히한해로더욱 흑심하게 밧고잇는 영흥(永興)정평단천 홍원 등군은 민심이더욱흉흉하다고한다

繁榮會를組織코 諸懸案解決邁進

學級增設、金津港築港等等 玉鷄面民들의이熱誠

【江陵】 江陵군 옥계면(玉溪面)은 근래광업의 경긔가조흔관계로 해마다 시가는 은성을 정하야간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날마다 팽창하는 이 지방에 여러가지 해결을 요할일이 만호나 특허옥계공보교의 학급증설과 금진항(金津港)축항문제등은 초미의긴요사로 이것의 실현에 대하야는 루차당국에향하야 진정한바잇섯거니와 이문제를 가일층 적극적으로 활동을할필요를절실하게 늣긴 이지방인사들은 며칠전 옥계면사무소내에서 유지백여명이 회합하야 옥계번영회를 조직하고 우선학급증설에필요한 긔금삼천원 출연할것굼진항축항긔금적립금에대한 절의를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곳실행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엿다는대 동회의선임된 역원은 다음과가튼 그들의 활동에 크게긔대하는바가잇다하야 일반주민들도 이지방에 사활문제인만큼 전면적 지지가 잇기를요망하는바가 크다한다

會長 井上龍藏 副會長 宋秉璣 同德久恭三郎 評議員은各區里長 以下略

大旺面에窃盜犯

一夜兩處侵入

【江南】 오래동안계속되는 한발로 말미아마 일반의인심이 자못 흉흉한이지음 광주군대왕면(廣州郡大旺面)에는 요사이 도난사건이 빈발하야 일반인심이 극도로 불안한중에잇다 지난칠일 오전 두시경에 광주군대왕면사무소(廣州郡大旺面事務所)에는 숙직원의잠드름을타서 어떤자인지 안으로잡근 유리창을 벗기고들어와서 책상우에둔 수제금고를 절취하여갓다는데 다행이 현금은 들지안헛슴으로 별로 피해는업스나 중요문서가 들어잇서서 동면사무소에서는 방금우려중에잇다고하며 또전기대왕면사무소와한동리인 대왕면세곡리(大旺面細谷里)김영안(金永安)의집에서도 가튼시각에농우(農牛)일두가 업서젓다는바 이것은동일한사람의범행이 아닌가 하고소관대왕주재소에서는 방금범인을 협만수사중이라고한다

工費三十餘萬圓으로 道路河川等改修

◇…不日間工事入札豫定 忠南土木工事案決定

【大田】 충남도의 금년도의 토목사업(土木事業)비는 총액삼십이만원으로 저간신청한 국고보조금액도 이미결정되얏슴으로근일중에 공사의태반을 입찰케할예정이라는바 공사를 실시할곳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河川改修費十七萬圓 大平里錦江護岸工事及論山運山川改修

二、各等道路、橋梁保全改良費十五萬圓

1、一等道路—天安大邱線 (大田儒城間) 京城木浦線(公州州外面)

2、二等道路—公州忠州線 (長岐面) 群山瑞山線 (長岐橋公里橋新長橋) 等改良

3、三等道路—公州青陽線 (定山面) 溫泉成歡間(牙山靈仁面)道路改良線의安心橋板洞橋、天安鎭川線의木川橋、扶餘江景線(石城橋) 洪城唐津線(梁谷橋)等

校長官舍에火災

【金浦】 지난 륙일오후팔시삼십분경에 김포군하성공립보통학교관사(霞城公立普通學校官舍)에서 출화하야 일시는 위험상태에빠지것을 동리사람들의 필사적노력으로 동구시이십분경에 겨우진화하엿다는데 그원인을 조사하야보건대 그날 판본(坂本)교장은 홍로집에잇다가 어떤친구가차저와서 그친구와가티 외출할때에 석냥불을 모기장부근에 함부로 내여버린것이 발화된것이라한다

阿片密賣[illegible]

一黨五名檢擧

【平壤】 평양부내 천정(泉町)중촌인 장운성(張雲成)의집에서 아편을 맛시고잇다는 소식을듯고 평남경찰부에서 동인의집을습격하고 장외동가인 네명을 체포햇는데 수개월전부터 아편의밀매와흡연하든것을자백하엿다한다

新昌地方에는 移秧겨우四割

【新昌】 년부년 랭해와 한발의 참변을 바더오든 북청군신창면에는 전수답이천여정보라는 대면적을 옹호하고 잇슴에도 아직까지 이러타할만한 저수지하나의 시설이 업서서 금번가티 계심한 한발에는 어지할수업시 하늘만 우러러 호소하든차에 지난칠일이상일간에 일천첨의회우로 한해의 수미는 피여다하나 이앙은 제우사할내외밧게못되얏스므로 일반농가에서는 또다시장탄식을 금치못한다고한다

妙香山採伐許可

面積은三百町步

【新義州】 평북도 산림과에서는 전반 묘향산(妙香山)채벌 허가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하얏든바 구일부로 허가되여 불일간 입찰을 하리라는데 채벌구역은삼백정보에 총채수 팔백척에 달하며 가격은 채벌하야보지안코면 알수업는것으로 금변부터상당간 계속채벌을 하리라한다

新義州支局主催 音樂과漫談의밤

京城 黃材景氏를招請 來十三日公會堂에서

【新義州】 본보신의주지국에서는 오는 십삼일 오후여덟시부터 부내 공회당에서 경성 『콜럼비아』 전속만담가 황재경(黃材景)씨를 초청하야 『만담과 음악의밤』을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순서의 내용은 제일부에는 황선생이 다변간 애써서 모흔고대진악곡(古代珍樂曲)과 당나라(唐國)시대와 리조(李朝)시대와 동서양진악기(東西洋珍樂器)로고대곡을 연주하고 현대악곡『피아노』로 조선고대『노래가락』과 여러가지 고대곡(古代曲)을 연주하는 흥미『백퍼센트』이고 특히 악기로 말하면 박물관(博物館)에서도 보지못하고 듯지도못한 선생외에는 소유자가 조선내에는 업는것이라한다

木浦엔霖雨繼續

【木浦】 작년한재지인 목포지방일대는 심혹한 한발이 계속하야 일반농가의 인심은극히 흉흉하든중 이앙할 시긔는 다소느젓스나 다행히 지난 륙월하순부터 일적 천금의 비가 나리기 시작하야 륙월말 현재로구할 가량의 이앙이 되엿는대 그후 나리는 비는 근칠줄 모르고 날마다 부실 부실 계속하고 잇는바 지난팔일 목포측후소의 발표에의하면 당분간은 치지안코 계속하리라 하야 일반은 그럿치 안해도 시긔가만히느진 이앙인데 아대로 림우(霖雨)가 계속한다면 발육이더욱더 느질뿐아니라 홍수의징조가 엿다고매우 우려중이라한다

土地뿌러커跋扈 數千借地人不安

碑石里某地主高價로不買라코 畢竟土地明渡를提訴

【鎭南浦】 최근진남포부에는 토지『뿌러커』의 횡포로 부민의 약삼분지이나 되는 수천의차지인(借地人)들은 극히불안중에싸히여 잇다평양금자(金子)씨의소유산만육천여평이 진남포비석리 후포리 신흥리(碑石里、後浦里、新興里)등지에 잇섯는데 얼마전안주의 부호김모가 자긔의사환청양길(梁養吉)외삼인의명의로 평당삼이원이십전식에 매수하여가지고 차지인들을 폭리를 보려고 계획을하고잇다고한다 매수한 삼만육천평우에는 구백여호의집이 잇는데 대개가 빈민들임으로 양일만평을 제일착으로 처분할계획을 세우고 고까롭주고라도 사지안흐면 안될위치의 가주(家主)들에게 매수가격의배이상내지 칠팔배의 가격이요시까에도 배이상이나되는 평당최저삼십원으로 백원까지를 요구하여스나 일체불응함으로 위선위치로보아 중요하고 인물로보아 유산계급들인 서선려관(西鮮旅館)주 윤과락、삼성정미소(三成精米所)리종섭、광성당약국(光成堂藥局) 김형진、부회의원 류량식(柳良植)、삼섭농장리중섭(李重燮)등다섯명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明渡請求訴訟)을제긔하엿다는바 이것이 진남포개항이래 처음되는 일임뿐아니라 그토지우에 사는 집수구백여호나되는이만치 장차 그결과가 어떠케나되겟는지 크게 주목되는바 어며 이소문을 들은 수천차지인들은 전전긍긍하여 목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岩石이떠러저서 青年一名即死

【草溪】 합천군쌍책면상신리(雙冊面上新里) 리귀용(李基用)의장남리규한(李圭漢)(二)은 지난일일 오전여덜시경에 동리아페소(牛)를 메기고이슬때에 상봉으로부터 삼천근가량이나 되는 큰바우가 전긔리규한의 두부에 떠러저두부전부가 깨여저서 현장에서무참히도즉사하얏다고한다

黑字에날뛰는新鐵

現在의咸興車連絡汽動車를 今後電車로變更計劃

【咸興】 함흥탄광철도에서는 종래이십오분에 한번식다니는 긔동차를 승객의편의을 위하야 매일십분에한번식 발차케 하엿스나 억엽이 부절을극하게된 신흥철도에서는 현재의 긔동차를 최신형전차로 변경하여 빈번한 흥남과 함흥사이의 교통을 완화하려는계획 이계획은 신흥철도창업당시부터 가지고잇든 계획이엿섯스나 그실현을 이와가티 빨리 할필요를 감하게된것은작금 흥남의 발전이 실로 경이적 발전을 보이고잇슴에 긔인하엿슴이라하며 그실현긔는 금년말이나 느저도 명춘에는 실현되리라고한다

今日 十一日

午後八時半부터 白善行紀念館에서

朴景姬孃獨唱會

◇主催 平壤愛隣院 私立盲啞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48】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이러한 아버지(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은주에게는 업다)와 어머니의 피를 바든 은주는 천성이 매우 근엄하엿다。가개에 안젓슬 때에 밧그로 지나가는 여자를 아라보는일이 업섯다。그러하던 은주가 남의딸과 하로ㅅ밤을 가티 하엿스니 비록 청춘의 혈긔에 일시 꿈ㅅ속가튼 쾌락에 취하쟈 아니할수는 업섯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빛을 보면、

『앗불상。내가 큰 죄를 지엇고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문임에게 대하여서는 무한히미안하고 죄만한 생각이 낫다。그래서 정면으로 문임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어려웟다。

그러나 문임은 마치 행복이 넘치는듯한 얼굴로 자리도 게키고 은주의 옷도돌아보앗다。마치 안해나 된드시。그리고정다워하는 우슴까지 띄우 면서 조금도 수잡어함이 업시 은주를 바라볼수가 잇섯다。은주는 문임의 이 태도에 한편으로는 일종의 쾌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못 마땅한생각이 업지 아니하엿다。남편을 대할때면 살작 나출 붉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도 들지못하는、그러한것이 여자인줄 생각하는 은주에게는 문임의 이 태도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엿다。활동 사진도 연애 소설도 별로 본 일이 업는 그에게는 문임의 행동은 해괴한 일에 가까운것이엇다。그래서 문임의 크게리슈한 우슴을 편 눈이 제 눈과 마조칠 때에 은주편에서 도로혀 외면하엿다。

은주는 십분틈하는 아이가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볼것이 두려웟다。가개를 열기전에 문임이 가기를 바랏다。그러나 문임은 종얼종얼 노래까지 부르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비섯다。은주는 어제ㅅ밤 물의에 숙소에서 뛰어나온 문임이 그 핸드백 속에 단장에 필요한 제구를 다 가지고온것을 놀랏지 아니할수업섯다。

『이 계집에가 석한 계집엔가』

하고 은주는 머리를 틀고 안젓는 문임의 뒷모양을 보면서 생각하엿다。은주의 눈에는 얌전하고 아담하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엿다。얼속 어뗜 남자와 마조서서 말하는것도 보지못한 그어머니、부득이 어뗜 남자와 말을 하게된때에는 반쯤 외면하고 고개를 숙이고 발뿌리만 들여다보던 그 어머니、외딴 길에서 남정네를 만나면 살작 돌아서서 길을 피하던 그 어머니——은주에게는 이런것이 여자의 정도라는 생각이 기퍼 뿌리를 박고 잇섯다。

그런데 문임의 이 말괄량이 꼴。예전에 상회에 올때에는 그러케 얌전을빼던 문임이가——하면 은주는 일종 환멸을 느끼지 아니할수업섯다。

머리를 트노라고 어깨와 등과 허리의 근육이 여러가지모양으로 움지겨서 일러지는 여자의 몸의 여러가지 리즘과 포우즈——그것은 화가들도 조화하는、여자의 육체미중에 중요한것이언마는 은주에게는 그런 것이 다 못 맛당하고 천착스러운것 가탓다。

『요새ㅅ계집애들은 다 저러케 되엇나。나만 옛 날 긔분에 살고잇는것인가』

하고 은주는 걱겨 한숨을 지엇다。

그와 반대로 문임은 모든 일이 인제다 해결되것 가티 방글방글 웃고 잇섯다。머리를 다 빗고 매무시를 다 고처하고 차마ㅅ자락을 아프로 보고 뒤로 보고 그리고는 두 팔을 버려고 와서 은주의 목에 매어달리면서、

『나는 가요。인제 나는 고아가 아니야요』

하고 매어달리면서 카스를 하엿다。그리고는 은주의 마음을 알아보랴는드시 말끄럼이 은주의 눈을 들여다보앗다。은주가 문임의 눈을 피하랴는드시 허공을 바라보는것을 보고、

『왜、불쾌한 얼굴을 보이서요? 내가 무슨 잘못한것이 잇서요?』

하고 노여는 모양을 짓는다。

『아니』

하고 은주는 가여운드시 문임의 어깨에 손을 언즈며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그런니다』

하고 싱그레 우섯다。그러나 그 우슴은 곳 살아져버렷다。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ㅣ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꼴치가갈려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번히번두리를압흘때……노ー신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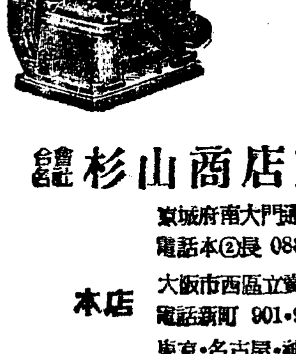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登錄商標 선루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二一五九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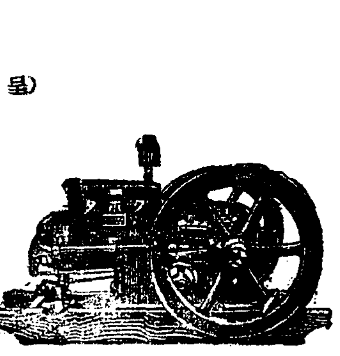
伊佛獨米英日 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呈送獻文)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②長 0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純植物性 井筒ポマード

언제나爽快하고 明朗한것은 優雅한芳香 井筒포마ー드

輕快한 整髮美!

東京 本舖 井筒

CAS—12

御進物 第一즐기는이優良品!

アサヒビール サッポロビール

半打入・一打入化粧箱

朝鮮麥酒株式會社

最高級清涼飲料 リボンシトロン 三ツ矢サイダー

當る七日常室大公開(一日間)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ニュース 二、三五 六、三五 七、〇〇
野崎小唄 二、〇〇 五、〇五 七、四〇
花嫁設計圖 三、二五 六、二九 八、三〇
主題歌ポリドール吹込
新兵キネマ京都撮影所特作
原作 土方 稔
脚色 瀧川十一郎
監督 木村 惠吾
オール・サウンド
野崎小唄
久松に男裝する 久松三津枝
お染に扮する 毛利峰子
お光に扮する 森 靜子
白石明子、松本田三郎、水野浩、宮川敏子、助演
主題歌タイヘイ吹込
報知新聞連載小說
原作 中野 實
監督曾根 千晴 撮影 古泉勝男
オール・サウンド
明朗篇 花嫁設計圖
山路ふみ子、立松晃 主演
清水將夫、上田寛、大井正夫、野邊かほる、田中筆子、藤宮璃子助演
永樂町 中央館 電(本)二〇〇三番

經濟解說 米對濠關稅戰
日濠同樣의深刻

日本의 對濠通商擁護에 이어서 이번에는 米國의 對濠報復案이 決定되어 米國政府는 八月一日부터 濠洲品에 對한 最惠國待遇를 停止키로 되엇다고 傳한다。

×

五月二十二日부터 濠洲政府가 實施한 新關稅及輸入許可制度가 日本及米國을 對象으로한것은 周知의 事實로서 濠洲政府는 綿製品、人絹製品의 輸入에 對한 日本의 强烈한 反感을 惹起한 米國品에는 輸入許可制를 適用하나 日本品에는 適用치아니함으로 日本品의 受하는 打擊은 적다」라는것을 抗辯의 材料로 하얏던것이다。

×

그러면 濠洲政府의 貿易新政策이 米國에 如何히 影響될것인가 綿製品、人絹製品、硝子、木材、靴及紙類、다이푸라이다 其他多數의 米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對한 關稅가 引上되고 또 以上諸商品及그以外의 商品의 米國으로부터의 輸入에 許可制가 適用된것이다。 그리고 商品에 依하야는 英國品과의 競爭上 致命的打擊을 受한것도 잇다。

×

그 가장 顯著한 例로서 들것은 自動車車臺로서 이것은 今年四月로써 終하는 一年間의 輸入數量을 基礎로 米國으로부터의 輸入을 一個年二萬五千臺로 制限하는 同時에 如左히 關稅改正을 實施하엿다。

◆舊稅率
特惠稅率 無稅
中間稅率 從價 [illegible]
一般稅率 同 [illegible]

◆新稅率
特惠稅率 無稅
中間稅率 一封度에 對하야 [illegible]
一般稅率 同 [illegible]

×

그리고 在外에 新稅率로서는 特惠、中間、一般의 三種共히 一封度에 七片의 附加稅를 課한 一方 從來 各國品一齊히 課하던 從價一割의「푸라이메ー지・듀ー티ー」는 撤回케 되엇슴으로 英國品은 今後 一封度에 僅히 七%의 附加稅를 除하고 一切無稅로 되엇고 米國品은 자못 不利한 立場에 서게될것이다。

×

何如間 今回의 濠洲의 貿易新政策이 英國의 産業을 保護케하기 爲하야 行한것은 勿論이다。 이것을 不要하는것으로 英國은 이에 依하야 年額三百萬磅以上의 濠洲向輸出增大를 豫期케되리라고 보인다。 例컨대 前記米國製自動車臺의 輸入制限에 依하야 英國自動車의 濠洲向販路가 擴張되고 또 今後發展이 豫想되는 濠洲自國의 自動車製造工業에 對하야 有利한 資本的參加를 할수 잇스리라 한다。

그리고 濠洲政府가 米國에 對한것은 以上과가티 自國産業을 擁護케하고 英國産業에 利益을 拘禁케하는 目的外에 米國과의 貿易이 恒常濠洲에 잇서서는 支拂勘定이 片貿易狀態를 調整코저함이 一因이것이다。

×

濠洲의 對米貿易額은 左表와 가튼바 左表의 輸出額中 米印은 千濠洲磅으로서 表示되것이오 最近의 倫敦市場에 依하면 濠洲磅百廿五磅이 英貨百磅에 相當함으로 右輸出額을 英貨로 換算하면 一層少額이되어 濠洲貿易의 一方的貿易關係가 一層分明하다。

（單位米印은 千濠洲磅、其他는 千英貨磅）

	輸入	輸出
一九二九―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三〇―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三一―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三二―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三三―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金融機關」今日休載

朝鮮産業界躍進相!
處處工場簇出 大財閥總集中
◇…鍾紡과三井이新陣容으로 最近加速度로激增

大資本의 朝鮮進出은 最近數年間 加速度로 激增되어 大工場이 處處에 簇出되고 表面에 나타난 朝鮮의 産業界는 躍進相을 示코잇는터인데 要注目되는 두가지『뉴스』가 잇다

（一） 鍾紡京城支店設置=鍾紡은 光州、永登浦、大田、平壤、大邱等地에 工場을 新設 擴張하야 그勢力이 膨大해가는터이나 어灾든은 總括할 營業支配는 依然本社에서 하던것을 이번에 京城에 支店을두고 朝鮮內의 諸工場事業을 直轄케 하기로되다는것이 그하나이오

（二） 三井合名의 農林會社=三井財閥이 朝鮮에 나와서 産業各部門에 亘하야 事業網을 廣張하고 規模크게 事業을 進行코 잇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번에는 朝鮮의 山林 水田 田七萬八千町步를 事業對象으로하야 一千萬圓의 資本으로 大農林會社를 新設키로 이미 九日社員總會에서 正式決定되엇다는것이 그두가지이다

鍾紡이京城支店
設置코자定款改正

【東京電話同盟】 鐘紡에서는 十三日의 株主總會에서 同社定款의 全面的改正을 하기로되바 改正의 主要點은 다음과가튼바 그目的은 經營의 合理化와 朝鮮進出 其他 時代의 潮流에 順應하라는것이라고한다

一、營業의 全面的擴張
一、支店整理新設=定款에依하면 支店은 各工場所在地에 設置하고 그數十七의多數에達하는바 이것을大阪、神戶、京城（新設）의三支店에 制限하고 그外의支店은 모두 廢止하야 事務의運用合理化를圖함
一、社長의任期制限을撤廢

三井은農林會社
來月中新設할計畫

【東京電話同盟】 三井合名에서는 議者 同社의 農林課를 擴大分離하야 一株式會社를 設立하라고 計畫中이더니 最近具體案이 되엇슴으로 九日午後二時 社員總會에서 正式決定하고 곳 設立準備에 着手키로 되엇는데 느저도 來月中에는 實現케되고 新會社의 資本金은 約一千萬圓中 九百萬圓을 現物出資拂込으로하고 配當은 同五個年間 업기로決定한바 事業地의 面積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關係分만）

▲朝鮮=山林、水田、田、七萬八千町步

朝鮮袋入白米의 不賣決議는擴大?
東京、橫濱米商까지

朝鮮米의 移出은 近年에와서 玄米로부터 白米로 轉換하고 잇슴은 移出商으로서 當然히 取할것이나 이때문에 從來玄米를 移入하야 精白加工키를 爲主로 日本內地大都市의 白米商이 어느程度까지 威脅을 벗는것이事實이어서 過般에는 大阪의 白米商組合에『朝鮮袋入白米』의 不賣를 決議하야 問題를 이르킨바잇섯거니와 近者의 消息을들은 東京、橫濱、名古屋、京都、大阪、神戶等大都市의 白米商組合이 談合會를 組織하고 先着으로 近年白米商의 領域을侵蝕하는 産業組合 生産의 白米不賣를 決議할 事情이라는가 大阪、東京、橫濱方面의 白米商組合에서『朝鮮袋入白米의 賣捌』을 嫌忌하는事情을보면 今後前記聯合會의 名義로서 朝鮮袋入白米의 不賣運動을 全面的으로 이르킬念慮가 엿지안라고하야 最近移出港의 糖米業者間에는 그對策에 對하야 愼重한態度를 取하고잇는터이다

農事改良怠慢의 地主에게警告
農林局이各道通牒

朝鮮內의 農事改良上 大地主의覺醒을 促할點에對하야 農林局에서는 再三農林局에서 各道知事에게 通牒한바 近年農産物價의 昇騰에 依하야 農業經營의 採算良好를 다시 地主에 一層의覺醒을 促하라고 農林局에서는 過般以來過去十個年의 實績에 對하야 五十町步以上의 大地主로 農事改良에 留意하는便과 留意치안는便과의 農業收益狀態의 全般的 調査를 하야가지고 그實例에 基하야 大地主에게 警告키로되엇다

農事改良에 留意하는便과 留意치안는 便과의比較는 不遠計數를 發表할豫定인데 그收益狀態는 農事改良의 收穫은 十年前에比하야 二倍乃至四倍를 示하엿스나 留意치안흔便은 依然舊態이므로 그實例를各大地主에게周知케할意向이다

中央都賣市場所
候補地는蓬萊町新炭場
明年度豫算四十萬圓

京城府中央都賣市場設置에關하야는 十日午後부터 京城府産業調査委員會를열고 同市場設置準備를 爲하야 招請한 大野氏를中心으로 懇談會를 열게되엇다 同懇談會에 市場의構成、位置、擴設等에關한 全般的討議가잇슬터인데 京城府로서는 今後三十年以內百萬人口에達할때를 豫想하고 立案中으로 討議內容도相當히 廣範圍에 미츨터이다 京城府로서는 于先問題의 位置에對해서는 鐵道線關係其他를 參酌하야 現在의 蓬萊町 新炭市場을 最適의 候補地로하고 豫算은 明年度에 四十萬圓豫算計上할모양이고 繼續하야 年次擴張할터이라고한다 그리고 現在의 新炭市場은 淸凉里方面으로 移轉될모양이다

佛國銀行 又復利下
四分을三分으로

【巴里九日發同盟】 佛蘭西國立銀行은 九日午後六時割引利率을 四分에서 三分으로내렷다 同行은 六月二十三日 六分에서 五分으로 同二十五日 五分에서 四分으로 내려가지고 오늘에일른것이다

開城電氣 合倂決定
"西鮮合同"에로

開城電氣는 開城을中心으로 京義線金村에서 奧水에 일호는 京畿、黃海二道에 電力을 供給하든바 漸次 그區域을 擴張하야 江原道伊川方面까지 일호고 따러서 同社의 發電能力을 擴充할必要가 엇게되엇스며 一面西朝鮮合同은 長津江의 豊富低廉한電力으로써 沙里院을지켜 海州까지進出하고잇는터이므로 此際에 電力과電氣事業統制에 一步를내노아 開城電氣、西鮮合同兩社間에 豫著부터 合同折衝中이더니 二十五日 兩社同時에 臨時株主總會를 열고 附議承認을 求한뒤 今秋 十一月一日를 期하야 西鮮合同의 開城電氣合倂은 實現키로 되엇다고 한다

上旬對外貿易
入超九百一萬圓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에依하면 七月上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六五、一四二
輸入	七四、一五三
合計	一三九、二九五
入超	九、〇一一

石油配定決定
七月부터九月까지

石油業法에依한 今年七月로부터 九月까지 三個月間의石油販賣配定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以下單位키로리틀）

	外油側	內油側
揮發油	三三、六八一	三六、九五三
軍油	[illegible]	[illegible]
燈油	[illegible]	一、一三三
輕油	五二四	一〇三
機械油	四〇三	一九九

그리고 外油는 라이징선、스탄다드、텍사쓰의三社 內油는 日石、三菱、林兼、旭、立石의六社 이라고

朝鮮內製糸 操短廢止
原料의豐富로

朝鮮內 春蠶의收繭은 播立이 六十五萬三千五百二十二枚로 前年보다 八分一厘의 增加인데이를따러서 實收도 一割五分의增加가 豫想되야 共販消繭도自由市場의 閉鎖等도 잇셔 二割强의 增加를 보게되엇스므로 各製絲工場이 모두 近年에업는原料豐富로 今年은 昨秋에 實施한 一割操短을 廢止하야 全部操業을하기로되엇다 고한다

東銀三分配內定
十日定期重役會에서

東一銀行에서는十日 午前十一時부터 決算重役會를 열고 上半期의株主配當은 年三分据置로決定한바 總會日字는未定이라고한다

商銀新設兩支店
吉州와三千浦에

商業銀行에서 新設認可申請中의 吉州、三千浦兩支店新設은 數日中 正式으로總督府에서 認可할 모양이라고

貯銀八分配內定

朝鮮貯蓄銀行에서는 今月廿五日 午前十時부터同行에서 第十四回定期總會를 열고 剩餘金處分案（年八分） 取締役一名補選의件等을附議할터이라고

殖銀人事異動

九日附로 課長代理級의 異動이 다음과가티 잇섯다고
▲命秘書課長代理（本店）尾西茂樹 ▲命産業金融課長代理（江景支店長代理）張鳳鎬 ▲命江景支店長代理（淸津支店）李允河 ▲命依願解職（産業金融課長代理）金議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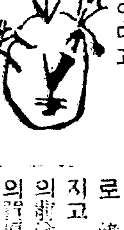
取引停止 （七月七日）

京城府林町 二番地 合資會社合同印刷所 代表社員 柳德三

經濟界消息

○江原道開發社廿四日創立=朝鮮電力의 變電設備著를 하기爲하야 設立計劃中의 江原道開發會社（資本金一千萬圓）創立總會는 二十四日 東京에서 열기로되엇다고

○江原道開發會社長井上氏就任=井上遞信局長은十日附 退官하고 今月廿四日의 江原道開發會社創立總會에서 同社社長으로就任後 同社가 朝鮮電力과 合倂한뒤 事務로就任키로 內定하엿다고



三井은 一千萬圓新會社를 設하야 朝鮮서 크게 農業을 經營키로되고 鍾紡은 京城에 支店을두어 朝鮮內 諸工場을 總轄하리라고

○

작구 擴大 强化되어라 朝鮮이 조흔 事業地가 또 되 잇것다

○

井上遞信局長은 江原道開發社長으로 南朝鮮 某知事는 富寧水力電氣社長으로 就任하리라고

○

朝鮮은 官僚萬能時代 양이냐아 마구다리를 뚝해도 술데업는일 이것도 朝鮮의 特殊性?

○

十日의 國策閣議中止 국길여 먹나보다

國策閣議中止

國策壓迫感에서 解除되고 增稅와 稅制도이以上新規買材料가되지안코 戒嚴令撤廢를 在近라하야 强氣의 買進으로 四日以來 循際的好勢를 示한터이나 國策閣議가 强氣側에 有利히 結末이 나지안는 積極安心買는 危險한 일일것갓다 寺內陸相은 第二次國防整備十年繼續三十億圓案을 十三日閣議에 提出하리라하며（十二年度는三億圓）平生文相은 賭職을覺悟하고 義務敎育延長案을 十日閣議에 上程하야 藏相과 衝突難免形勢인等 氾濫한 各省의國策豫算을 大藏省이 여떠케 裁量할지 或은重大한 政局變化를 招할念慮도不無함으로 依然國策閣議는 重視되고잇는터인데 十日의 閣議는 閣僚間의 衝突을避하야 中止되엇다한다

增稅全貌苦待

二二六事件發表로 不安人氣가 減해지고 戒嚴令撤廢도 在近라하야 投資買에拍車를加하고 정말인푸레는 지금부터이라고떠들어 市勢는循環高이오 比較的好勢이나

上旬貿易도入超

上半期貿易不振으로 惡意의入超를下半期에 얼마나減케할가가注目되던바 下半期第一旬인 七月上旬의 貿易도 九百萬圓의入超를 示하야 前旬入超보다도 四倍增이엇슴으로 貿易悲觀이 濃厚하야졋다

鍾紡事業擴張

鍾紡은 廿三日總會에서 事業의 全面的擴張을 附議하리라함으로 市場의 오래 懸案이든 京城支店도 이번에는 實現될것갓고 社長의任期制限撤廢로 津田社長은 獨裁的權力을가지고 事業에 邁進할것인가 鍾紡의 前途는 크게 注目되며 强氣側의 買意는 더해가기쉬울듯하얏다

實物前場取引

▲東洋拓殖一六六〇 ▲櫻田機械一三五〇 ▲에다파이新七八〇 ▲滿洲煙草一三〇〇 ▲滿洲製粉二五〇 ▲鮮滿開拓一〇三〇 ▲滿洲세멘트一〇〇〇 ▲日滿아루미五三五〇 ▲南國産業一五〇〇（取引高一八〇枚）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四三 ▲第三五分利 一〇三八 ▲二二年 一〇一五 ▲二八年 一〇三〇 ▲第一回四分 一〇二五五 ▲第二回四分 一〇二五 ▲佛貨四分 一九八三〇 ▲米貨六分半 三九九三〇

米期 過賣反動 跳返

前場反高

昨後場反地三十錢에 各大引 朝新三十二圓十七錢 五十九圓十錢、朝新三十二圓五十錢 日産七十四圓五十錢으로 後場堅調 ...

後場堅調

買易入超、國策閣議中止等 環境不良이나 買치안어 堅調이엇스니 卽東新百三十一圓六十錢으로 朝新三十二圓五十錢、日産七十四圓九十錢、大新七十三圓六十錢、鐘新百五十九圓十錢、朝新三十二圓七十錢에 各大引

商況 （十日）

株式 材料逆行 堅調

前場强保

今朝前場은 强保買 물업고 實物一巡으로 强保强度로 新動機待이엇스니 卽東新百三十一圓六十錢으로 朝新三十二圓二十錢 日産七十四圓五十錢、鐘新百五十九圓十錢에 各大引

趙後鎬取引店

米 期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今日財界 （十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正米 一等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 [illegible]
銀 一匁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ＲＦＡＱ [illegible]

米期

後場暴騰

後場은 買一二圓四十錢에 一丁高로 始場後 四節六十錢에 暴騰되고 反落五十錢에 止場하며

三圓五十一錢止와 共히 三十三圓二十六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五十錢인 一丁低를據하고 三十一圓二十八錢인 二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五十五錢까지 返戾하엿다가 結局五十四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五節三十九錢까지 跳返하야 止場하엿다

商勢反히底强 雨不足關係?

朝鮮의 中部만이 雨量不足으로 移秧을完了하지못하야 降雨를期待하든中 一昨日부터 陰曇으로 好雨를 齎來할듯하엿스며 띠아서 當地先限卅一圓廿三錢까지 反落하엿스나 結局 霧雨에不過함으로 ... 하야는 阪仁의兩地中限開朝가 百五十丁이나 되엿合으로 好機로한 金太及⑦側은 限賣를 引退하는 一方으로 地中限買를 賣退하는 光景이다 整理한 그石數는 二萬餘石으로 아즉도 未整理한 石數가 ...

中限戰이壯觀 金太丸ウ는整理

當地의 中限은 一時表面의 取組가 約十萬石으로 그裏面의 石數를 總合하면 적어도 五、六十萬石의 大取組를 擁하엿스며 仕手의 關係는 來客買池田坊의 比較的軟優勢를 支續하여왓스나 그中限買의 主力側은 金太及丸ウ側으로서 當時阪仁의 朝가二百餘丁으로 開朝되엿슴때에 地賣阪地買인 即取朝的策戰을 하여온마큼 阪仁의 開朝가 擴大되는때가곳 賴側의勝利를 告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 昨今에入하야는 ...

의 現象으로 보아서는 日本內地의 稻作도 樂觀을 못하는狀態이며 朝鮮에 잇서서도 中部地方의 不作을 除外에는 大體豊作으로보지안흘수업는즉 今後의 天候가가장 注目되는바이며 의 農作云云의說을 全然度外에 付할수도업다 그럼으로 今後土用天候의如何를 보지안코는 買方針을 維持할수도업다 即今日 …을强材料視함에不過함으로 南朝鮮 …

株……昨日 東京東新 百卅二圓七十錢으로 前物一巡이라 고

▲十日의國策閣議는 衝突을避코저中止 國策이審議되지안코 波瀾이면 政局念慮가생길것 ▲上旬貿易도 九百萬圓의入超 貿易悲觀은 現實의惡材 ▲하로밧비 全貌가나타나여야할 增稅는 얼마나되겟느냐? 國策閣議가 이모양이니 다시 不安 再燃이 十常八九 ▲無軌道的으로 事業을 擴張한다는 鍾紡의前途果如何 반드서 拂込만떠들어無關할가?

米……大勢의低落은 此邊의 低價로서 一巡되엿다 고할가? 昨今의步調는 活東의觀이업시 懸念中下旋光景을呈할뿐 ◆때마침雨를 齎來할듯하는天候도 이업슴으로 人氣가俄然强硬 ◆今朝부터 滿鐵으로降雨의希望 ◆今朝丸仁等三等 玄米는三十一圓十錢으로 昨日보다 五錢緩落을告하엿슴에反하야 淸算市勢는 十餘丁의反高를示하엿다 ◆그러나 不遠한時日에 朝鮮에保有되政府米의 拂下가되는모양이니 此로因하야 市勢는 當分局騰하지못할것을可期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朝鮮側、海城自己、地場
▲買方=地場正米、地場小口

各地正米

京城軟調
依然不買不賣의 場面으로 無氣狀態를不改하고 纔續하야 五錢低唱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五十錢

仁川積落
依然히 一般의 模樣的態度로 去益場面이沈滯이오 更히 五錢低唱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釜山焦付
日本內地人注中 絶狀態로 買方은 거의 續勞觀人氣이오 纔續하야 大觀散場面을 不敢하얏다 取引高三五八叺 角フ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八錢

大邱下走
纔續하야 市場은 閑散하고 專히 殘存米數字待로 休商同際의 閑散을 呈하얏다 期米不勢로 十錢低唱인 角フ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五錢

群山不變
移秧은 大體一巡을 告하얏스나 殘存米發表待로 一般이 沈默을 직히어다 取引은 極度로 잘되지안혀는데 菱ク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保合
對日本內地의 交涉과 期米不勢로 商談不振이나 持米側의 賣崩騰機로 市勢保合인 丸木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株式 十日

◆朝取短期◆ 朝取、朝新、鍾新、大新、東新、日産 （前寄・前引・高値・低値） [illegible]

◆東京短期◆ 東新、日産 [illegible]

◆大阪短期◆ 大新、鐘新、日産、東新、日新、淺新、帝人、同新、日레、日曹、鋼管、郵船、東電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東新、日産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鮮銀、殖銀、滿鐵、東拓、鐘紡、東亞、富士、新 [illegible]

◆大阪長期◆ 東新、大新、東株、同新、鐘紡、同新、大株、同新、日糖、日産、郵船、同新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朝取、朝新、鍾新、大新、東新、日産、同新、日新、帝人、鋼管、日曹、同新、安取、拓新、北紙、朝石、日鐵 [illegible]

期米 十日

◆朝取期米◆ 前場・後場 一節～十節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中・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帳入價 [illegible] 取組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日本米上、朝鮮米上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朝鮮、台灣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下關、名古屋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京城、仁川、群山、木浦、大邱、鎭南浦、新義州、元山、咸興、馬山、平壤、釜山 [illegible]

金融 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鰯搾粕沖價◆ [illegible]
◆鰯油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瓜哇外砂糖◆ [illegible]
◆치카코期麥◆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 康益貿易商店 光皿

德 金.銀.白金 應酬買賣換引金代 文注方地 要送料元金 京城德力 電話本⑵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

朝鮮紙物都賣 北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全北企業株式會社 電北七四五番 振替京城二〇一八〇番 支店全州府本町一丁目 電二五四番 兼委託販賣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黃金町二丁目九 長本局四八五六